

北韓調查研究 - 社会文化

平和統一理論과 北傀偽裝史學 批判

조판용
(국통조) 95

I. 이 책은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하여 執筆한 研究論文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처의 意見を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研究執筆責任：林 承 国

略 歷 高麗大政治科卒(1951)

航空大学教授(1959)

崇実大学校教授(1959)

韓國古典文友会會長(1976 年
現在)

韓國正史学会會長(1976 年現在)

刊行責任：調査研究室 補佐官 李 源 明

調査研究室 社会文化研究官

目 次

(1) 問題의 提起.....	3
~「史学」이나? 「史觀」이나?	
(2) 偽裝史学の 類型과 問題性.....	6
(가) 「네오·내쇼널리즘」의 虛實..... 7	
(나) 北傀偽裝史学の 真相과 對策..... 11	
(다) 反省과 對策..... 23	
~實証史学은 自己陶醉에서 脱皮해야~	
(3) 平和統一의 理念的 体制的 武裝 - 「民族史觀」.....	41
(가) 「漢四郡=朝鮮四郡國」의 正體..... 41	
(나) 黃河文明의 主人公은 바뀌다..... 57	
(다) 「百濟의 榮光」을 發掘한다..... 77	
(라) 東夷武力의 偉大性과 特性..... 91	
(4) 主体的·民族史觀의 確立.....	96
(가) 빛나간 民族史觀批判..... 96	
(나) 世界主義史觀에 對한 警告..... 100	
(다) 花郎은 韓國精神文化의 集約的具顯이다..... 104	
(5) 結 言.....	116
~北傀의 史学挑戰을 어찌對應할것인가~	

(一) 史學이냐? 史觀이냐?

(1) 問題의 提起

우리는 '밀레'의 晚鐘을 보고 '밀레'의 心鏡을 안다 다시 말하면 作品을 보고 作者의 사람됨·人格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理由로 지금까지의 史觀論爭을 보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史觀論爭이 立脚하였던 「史學」의 大地와 그 「史學」의 善惡 眞否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史觀의 論爭에 앞서 史學의 論爭을 먼저 提起하는 것이다.

무릇 史觀은 史學의 土台위에서 發芽되고 거기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다.

歪曲과 汚染의 史觀을 論難 批判하기에 앞서 그 歪曲·汚染史觀이 뿌리박고 土台한 學問의 大地 - 史學을 問題삼고 批判하는 것이 順序일것이다. 오늘날 韓國史에서 問題로 提起되어 있는 倭色·植民史觀·西歐性向의 世界主義史觀(實証史觀)·唯物史觀·그리고 前近代遺物인 事大主義史觀等 史觀의 類型은 多樣하지만 그 어느것이나 그 史觀이 立地한 「史學의 大地」가 相異한 것이다. 그러므로 史觀을 論하기에 앞서 史學의 論議·史學의 戰爭을 먼저 終結지어야 한다고 提言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共產主義와 對決하는 乾坤一擲의 戰爭을 하고 있는 非常時局下의 國民들이다. 비록 塹壕와 塹壕 火力과火力의 對決이라는

軍事的對決은 終熄(休戰)되었지만 思想 理念에 依한 戰爭狀態는 本質的으로나 現實的으로 終熄될수 없고 終熄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現實感覺」은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더우기 共產主義라는 「政治理念」은 唯物辨證法 - 唯物史觀(史學)에 基礎한것이므로 오늘의 狀況은 곧 「史學 對 史學」「史觀 對 史觀」이라는 對局相 或은 戰爭狀態로 集約表現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對共鬪爭에서의 勝敗가 韓國民族史의 「死活을 賭한 乾坤一擲의 싸움」일진대 「史學의 整備」「史觀의 定立」은 곧 이 戰爭의 鬪爭武器로서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史學과 史觀의 混迷相」!은 敵前에서의 武裝解除狀態 或은 對共鬪爭에서의 敗北를 豫見케 하는 소름끼치는 不幸일수 있다. 史學 乃至 史觀이 이 歷史的 時空속에서 지니는 意味는 實로 嚴肅하고 큰것이다. 그것은 單純한 社會科學이나 學問의 領域에 局限되는 問題가 아니라 國家・民族의 存立에 直結되는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人類를 破滅의 奈落으로 몰고갈 歷史哲學(唯物史觀)으로 武裝된 敵軍과 相對하고 있다는 冷嚴한 現實과 狀況에 留意해야 한다.

오늘날 이나라의 國土統一方案은 軍事的對決을 排除한 平和的國土統一이 國是인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南北間의 鬪爭이나 對決이 本質的으로 排除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銃砲에 依한 戰爭手段은 止揚되었다하더라도 理念과 思想에 依한 보다 뜨거운 熱

戰은 이제 그序章을 열었다. 아니 軍事的인 勝利아닌 理念과 思想鬪争에 依한 勝利를 追求하는 戰爭 '패턴'으로 国土統一의 方策이 轉換했다는 것이다. 南北間에 平和統一에 對한 熱望이나 攻勢가 加熱되면 될수록 理念(思想)鬪争을 為한 學問的 整備는 더욱 加速化되어야 한다.

다시금 強調하거니와 「民族史學 - 民族史觀의 確立」을 除外하고는 對共理念鬪争의 王道는 存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드시 다져두어야 할 하나의 「但書事項」이 있다. 아무리 民族史學(觀)의 定立이 時急한 것이지만 그것은 「民族史學的 復活」「亡失國史의 光復」이라는 土台위에서 「民族史觀의 確立!」이 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民族史觀確立原則」에 붙이는 「大前提」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먼저 「民族史學的 崩壞!」와 「國史는 아직 亡命中!」이라는 現實狀況이 正直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깊이 認識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民族史學 乃至 國史에 對한 올바른 認識土台위에서만 主体的 民族史觀 對共理念鬪争의 理念的 武裝으로서의 民族史觀이 定向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날 倭人들이 植民主義의 理念道具로 만들어낸 "朝鮮史"나 解放後 自由友邦에 對한 지나친 受惠意識에서 歐美指向一辺倒의 外向性・生吞式模倣이 빛은 "洋毒史觀"을 一掃하지 않고 "落書"투성이의 國史를 土台삼아 史觀刷新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물며 이런 風土위에서 勝共哲學이 담긴 民族史觀의 誕生・降臨을 기다린다.

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嚴格히 警戒되어야 할일이다.

오늘날까지 「落書」투성의 國史黑板위에 「落書禁止」라는 또 하나의 「落書」를 添加하고나서 「나는 落書を 지웠노라」고 수선을 피워온 自己欺瞞派들도 많이 있었다. 實로 어처구니 없는 名分論者들이다. 다시말하면 저들은 「民族史觀」의 看板을 둘러메고 主体的·民族史觀의 確立作業을 偽裝하고 있는 曲芸師요 愛國과 忠誠을 偽裝하는 御用學者라고 할 수 밖에 없다. 「落書禁止」의 팻말을 붙이는 또하나의 落書汚染添加行爲를 神聖視하고 神格化할 아무 理由가 없다. 더욱이 이런 汚染行脚을 하면서 學者然, 愛國者然하고 나서는 御用輩들의 倫理問題야말로 「우스꽝대」라고 一笑에 붙이기엔 너무 深刻한 現實이 冷嚴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主体的 民族史觀을 定立한다」는 大命題에 앞서 倭毒 中毒 洋毒의 汚染大地를 清掃해야 한다는 것이 이토록 深刻하고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2) 偽裝史學의 類型과 問題性

偽裝史學의 問題는 深刻하고 「데리케이트」한 것이다. 唯物史觀과 民族史學을 二元論的으로 展開하고 있는 北傀史學이 歐美學者들로부터 「네오내쇼날리즘」(新民族主義)의 評價를 받고 있는 實例가 그것이다. 또 史學의 「카테고리」나 類型의 嚴選·把握問題도 重要한 것이다.

唯物史觀과 實証史學은 別個의 "포메이션"을 갖는 異質史學이라고 생각되지만 「世界主義的 歷史觀」 「客觀的歷史觀」이라는 點에서는 共通點을 갖는 史學인 것이다. 더우기 지난날의 事大主義的 傳統史學이 「實証史學」이라는 새 "캐치 프레이즈"로 粉裝하고 橫行하고 있다는 事實도 看過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忍耐로써 이와같은 偽裝의 "탈"을 쓴 害國的인 「史觀-史學」을 容認해왔다. 그러나 그 忍耐力이나 持久力에도 限界點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以上 더 史學的 偽裝을 容認할 수 없다. 또 玉石을 分鍊못하는 價值觀의 混同을 이以上 더 座視할 수 없다. 이에 「正邪」·「真偽」를 가늠하는 正論의 "메쓰"를 든다.

(가) 「네오·내쇼날리즘」의 虛實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이 부리는 「言語의 魔術!」을 깨우치는 智慧가 아쉽다.

北傀· 共產主義者들은 武力南侵의 公公然한 企圖를 「平和統一!」이라는 「言語的 魔術」 곧 「暗號」로서 粉飾· 偽裝한다. 이경우에 「平和統一」이라는 「말」이나 「表意文字」는 「文字」나 「말」(言語)의 領域을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平和統一!」이라고 하면 「武力南侵!」이라고 하는 概念을 傳達하는 「戰略上的 暗號!」일 뿐이다. 金日成自身도 말하기를 "平和統一政策이란 基本的으로 全面戰爭을 통한 武力南侵의 基礎作業으로서 南韓에 對한 敵對的인 心理戰· 外交戰· 經濟戰뿐 아니라 制限된 武裝勢力의 南侵(派)에 依한 韓國社會의 内部的 崩

壤을 意味하는 것¹⁾이라고 告白하고 있다¹⁾

解放後 저들은 「共產主義!」라는 概念의 傳達手段으로 相反概念인 「民主主義!」라는 말을 暗号(!)로 使用했다. 共產主義者들이 이같은 言語의 曲芸와 魔術을 驅使하며 온 歷史는 實로 悠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共產政權의 常套手段을 沒理解하는 海外學者들이 中共이나 北傀의 理念的 傾向을 「新民族主義」라고 誤判하고 있다.²⁾는 것도 측은한 同情心과 함께 理解해 줘야 한다.

두 말할것도 없이 오늘날 北傀가 「民族史의 正統性」을 拳論한다는것도 前記한 共產政權 特有的 戰略暗号인 「言語的曲芸!」에 不過한 것이오 弄翰戲語에 不過한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北傀는 外向的으로는 民族史學을 偽裝하고 南北韓民族의 歷史的 同質性을 強調하면서 이 高調된 同質性의 共鳴土台위에서 南北韓을 統合한 共產政權을 樹立해 보자는 陰凶한 奸計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平和統一」의 戰略으로서의 偽裝史學, 우리는 그 正體·그 言語의 魔術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反面 저들은 內面的으로 唯物史觀에 立脚한 徹頭徹尾한 「력사」³⁾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本是 民族史學 或은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血緣

1) 金日成著作選集 op.cit.pp.202-203 参照

2) 美國 R.A.Scalapino 敎수, Glenn Paige 敎수

3) 北傀人民學校用 歷史敎科書

關係(社會)·地緣關係(社會)에 基本的인 因果關係를 갖고 成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南北民族의 同質感이라는 '뉴앙스'는 다른 要因들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血緣과 地緣' 關係에 依存하는바 크다. 그런데 北傀當局은 30年동안 一貫된 政策으로써 民族史學이나 民族主義의 唯一한 支柱인 血緣과 地緣을 抹殺하는 犯罪를 恣行하지 않았던가? 大量肅清 大量住民移動政策을 敢行하고 戶籍法을 없애며 「할아버지동무」「아버지 동무」를 濫發하는 이 모든 政策이 바로 民族主義·民族觀念에 對한 挑戰이요 血緣과 地緣·社會에 깊숙히 깔린 位階秩序에 對한 觀念과 民族的傳承을 송두리채 뽑아버리려는 共產魔들의 所行이 었다. 저들은 지금도 南北韓 離產家族들의 救濟나 面會提議마저도 外面하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南北韓民族의 同質感을 「詐欺」(!) 할 目的으로, 「民族史의 正統性!」을 외치고 「五千萬 朝鮮民族의 團結!」을 외치지만 이 얼마나 녀살좋은 口頭禪인가?

이와같은 口頭禪에 眩惑되어 共產政權의 生理와 本質을 알지 못하는 未感染 階層이나 未經驗層들이 北傀에도 民族的 同質感, 同胞意識 따위를 느낄 만한 媒介體인 民族史學 따위가 있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다면 實로 이는 民族史의 將來를 爲하여 슬픈 일이요 소름끼치는 現象이 아닐수 없다. 海外學者들이 中共이나 北韓의 理念的 傾向을 「네오·내쇼날리즘」이라고 誤判하는 것은 그런대로 容認할 수 있다. 저들은 共產黨의 生理나 本質에 對해서 우리만큼 體驗的으로 알지 못하는 未感染兒童(?) 들이요 未經驗層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共產主義라는 紅疫을 알아본 이 나라의 어느 階層이나 어느 部類의 人間들도 이와같은 北傀의 偽裝戰術에 眩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北傀가 正統性을 偽裝하고 民族史學을 偽裝하여 "네오 내쇼널리즘"의 誤判을 불러 이르게된것이 現實이라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저들의 假面을 벗기는 努力과 함께 風前燈火와 같이 겨져만 가려는 이 나라의 民族史正統을 維新 光復하려는 學問的 鬭爭을 더욱 苛熱하게 進行시켜야 할것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光復後 30年 동안 韓國史壇은 植民史學 朝鮮史가 깔아놓은 亡國의 奈落行 "列車레일"을 廢棄·撤去하지 않고 그 뒤를 疾走하는 蠻勇을 恣行해 왔다. 또 이에 對하여 北傀의 偽裝·民族史學은 例外없이 攻擊의 毒牙를 번득여 왔다. 그實例로 震壇學會編「韓國史」(=韓國史壇의 代表著作)에 對한 저들의 攻擊을 들수 있다. 4) 비록 偽裝된 戰略史學의 辯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攻擊을 받게한 「韓國史」 震壇學會側의 責任이 더욱 큰것이다. (詳細는 李進熙者, 廣開土大王陵碑의 研究)·光復30年이 지났는데도 아직 日本植民史觀의 倭毒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면 이는 言語道斷的 怪奇現象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韓國史를 비롯하여 오늘날 「韓國史壇」의 모든 「著作」들이 아직도 日帝가 韓半島에 犯罪的으로 移植시켜 놓고간 漢나라 植民地 (漢四郡等)를 半島밖으로 驅逐하지 못하고

4) 1965年度 北傀「歷史科學」第5号, 李進熙의 「廣開土大王陵碑의 研究」所引

있는것이 正直한 「実情」이다. 實로 슬픈 일이다.

이토록 韓國史壇에는 名分과 論理도 不在였드란 말인가? 北傀偽裝史筆은 우리의 이같은 虛点을 노리고 있는것이요 實際로 저들은 植民史學의 「뒷설것이」를 이미 말끔히 해치운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北傀史學의 偽裝史筆과 그 「真相」을 알아본다.

때늦은 感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北傀史學의 偽裝術을 正直하게 把握하고 우리의 失策을 補強해 가는것이 우리들의 當面課題라 여겨진다.

(나) 北傀, 偽裝史學의 真相과 對策

~民族史學 - 民族史觀은 國土再統一의 「基本哲學」이다~

~民族史學은 唯物史觀을 반드시 이긴다~

思想的으로 理念的으로 對立分裂된 祖國을 再統合 하는 唯一한 通路는 民族的 同質感을 바탕으로 한 民族史學의 發展과 이에 歸納되는 올바른 「民族史觀의 確立」이 存在할 뿐이다. 그러므로 平和的 祖國統一의 唯一한 「채널」도 史學戰爭의 勝利에 있다고 하는 命題가 成立된다.

勿論 「史學은 永遠히 鬪爭的인 것이다」 더우기 二十世紀는 唯物史觀과 民族史學의 大會戰의 「期」요 決戰의 「場」이다. 孫子兵法의 「知彼知己百戰百勝」을 拳論할것도 없이 우리는 唯物史觀共產戰略을 깊이 認識해야겠고 友軍인 우리의 民族史學 - 民族史觀도 決戰에 앞서 點檢을 해야한다. 歷史的으로 또 本質的으로 共產主義의 敵은 民族主義였고 民族主義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

에 祖国光復을 앞둔 지난 三十六年 동안 共產主義者들은 目前의 敵国인 日本打倒를 뒷전에 미루고 도리어 民族主義, 獨立鬪士들을 暗殺하고 虐殺하는데 血眼이 되었던 것이다. 共產主義 理念分子에게 「祖国의 勝利」와 「社會主義의 勝利」를 兩者択一하라고 한다면 서슴치 않고 後者를 択할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에게 있어 「民族」이나 「國家」는 手段이지 決코 「目的」이 아니다. 反面 우리에게 있어서는 「民族」, 「國家」는 다름아닌 「目的」인 것이다. 共產主義나 民族主義와 같은 政治理念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唯物史觀이나 民族史學같은 史學分野에 있어서도 이 原則은 不變의 것이다. 共產主義者에게 있어 民族, 國家, 或은 民族史學이 「目的」이 아니고 「手段」, 「戰略」이라 함은 北傀가 「民族的主体性云云」을 高唱하고 「高麗聯邦共和國」이니 「大民族會議」니 또는 「南北民族指導者會議」 따위를 拳論하며 또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의 所屬史學者(金錫亨, 朴時亨, 李址麟……………等)들이 民族史學的의 탈을 쓰고 南韓의 史學을 攻駁하는 따위의 陽動作戰이 이를 立証한다.

저들이 共產主義를 拋棄하지 않는 限 「唯物史觀」을 헌신적 버리듯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民學校(國民學校)를 비롯한 各級 教育機關에서는 唯物史觀의 唯物論的 弁証法에 立脚한 歷史教科書를 強制 制度化해 놓고 밖으로는 「民族史學」의 탈을 쓰고 二元論的인 史學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率直히 말해서 唯物史觀, 共產主義는 本質的으로 「民族史學」이나

「民族史의 正統性」 따위를 拳論할 理論的 理念的 根拠나 當爲性이 全無한 것이다. 저들은 理念的으로 民族, 國家가 目的이 될수 없고 오히려 民族, 國家의 超越이나 解体를 통한 共產社會 - 社會主義國家를 建設하는 것이 至上目標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或 主体性, 正統性, 民族史學等을 論한다면 이는 前示한 "스탈린"의 "슬라브民族이여 결기하라" 式의 戰爭目的의 達成勝利를 爲한 「手段」이요 「미끼」요 煙幕戰術에 不外한 것이다.

共產主義도 「民族」, 「國家」에 執着하는 人類의 本能的 原初的 意識構造를 熟知하는 까닭에 共產主義運動이 破局에 접어들거나 .大 躍進을 위한 어떤 刺戟劑가 要請될 때마다 世界의 勞農階級을 찾는 理念的 口號보다 人類의 本能的 意識構造에 呼訴하는 口號인 「民族」 「(民族) 國家」의 口號를 偽善的으로 高唱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羊의 楸데기를 뒤집어쓴 「이리메」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共產哲學에도 「民族」이 있고 「民族史學」이 있고 「民族意識！」이 있으려니 하고 믿는다면 이는 「짝사랑」에 不過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分明히 알고 넘어가야할 決定的事項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共產北傀의 歷史政策이 二元論的으로 展開(既述)된다는 것 또 저들의 民族史學이 全的으로 大韓民國의 史學을 對抗하기 위해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우리는 이같은 敵의 史學的, 挑戰을 正式의 宣戰布告로 받아 들어 이들과 決戰을 해야 한다는 大韓民國側의 基本立場인 것이다. 民族史學을 論할 資格이 없는 共產主義者의 妄說이라고 해서 一笑에

붙이는 따위의 輕率妄動은 嚴格히 警戒되어야 한다.

李進熙가 쓴 「広開土王陵碑의 研究」(日語版)에 紹介된 北傀史學者 李址麟, 李相昊 兩人的 『「韓國史」(震檀学会)를 論評한다』는 글은 「日本學者에 依하여 歪曲된 "朝鮮史"를 그대로 繼承, 踏襲하고 朝鮮史發展의 合法則性을 無視하고 있는 韓國史(震檀学会編)을 辛辣하게 攻擊하고 있다」고 伝한다. 또 同書가 伝하는 北傀의 「歴史科学」의 一節은 다음과 같다.

吾人は 歴史的으로 人民의 視野를 가리고 있는 一切의 封建的 歴史觀이나 特히 日本御用史家の 植民主義的 歴史觀에 立脚하여 쓰여진 "朝鮮史"의 体系를 完全히 一掃하지 않는限 "科学的이며 眞實한 우리들의 歴史를 追求할 수 없다 云云」(1965年 北傀「歴史科学」第五号 "震檀学会 - 韓國史를 論評한다")

北傀史家들이 「韓國史」-더우기 民族史學을 批判하거나 拳論할 資格要件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같은 挑戰을 無視하거나 神經을 쓰지 않아서는 안된다.

北傀의 戰略史筆이 指摘하는 것 마냥 震檀学会의 「韓國史」가 「朝鮮史」의 半島史觀을 踏襲하고 漢四郡의 陰謀따위를 오히려 더 敷衍하여 華麗한 凶版과 함께 싣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니 앞으로는 이따위 利敵, 害國史筆을 祖國統一의 根本哲學과 戰略이라는 次元에서 一切 封塞하는 政策的 勇斷이 아쉬운 것이다.

다시금 強調한다. 앞으로는 北傀史學의 戰(政)略的攻擊의 「的」이 될만한 「史學活動」이나 著史를 中斷하고 北傀의 偽裝的 民族

史學挑戰을 本質的으로 克服할 수 있는 民族史學의 開發育成을 期해야 한다. 이것이 思想 哲學 理念 學術 精神面에서 北傀의 挑戰을 拔本塞源하고 平和統一의 大路에 一躍邁進하는 길이다.

史觀革命이야말로 이 나라 價值觀 祖國觀의 革命이며 精神風土上의 改革이며 勝共戰略의 完成 勝共統一을 向한 體制와 體制哲學의 完成으로 치닫는 길이 될 것이다. 史觀革命이야말로 오늘날 韓國이 거쳐야 할 最後의 革命 곧 絶對革命임을 銘心해야 한다. 이 같은 警告가 아직도 "曠野의 소리!" 域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實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先知的 豫言은 못할망정 이 말을 祖國史와 憲政의 責任을 맡고 있는 朝野, 政治人과 愛國同胞에게 바친다.

위에서 指摘한 여러 北傀史學의 論說은 「直接挑戰」의 "케이스"다.

그렇지만 前記 李址麟의 「古朝鮮研究」(63年度 2月 28日發行)는 「漢四郡의 疆域」「古朝鮮의 涇水의 位置에 對하여」, 「遼水·遼東의 位置」等 韓國上古史의 重要한 争点部分을 매우 濃度있게 다루어 나갔는바 이는 史學에 充實한 듯 偽裝한 무서운 間接挑戰의 케이스이다.

위선·이冊이 13年前에 北傀學者에 依해 쓰여졌다는 事實에 驚愕을 느낀다.

李址麟의 「古朝鮮研究」는 이 나라 國定國史와 碩學 李丙燾博士의 近著「韓國古代研究」마저도 「正鶴을 언지 못한 「漢四郡」의 「位置」와

「涇水考」·「遼東考」 및 「肅慎·朝鮮考」等を 正確·明快하게 記述해 놓았다.

北傀 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長·金錫亨은 60年代初에 「日本은 韓國의 分國(양키)」이라는 主張을 담은 「古代朝日關係史」를 내놓아 日本史學界에 衝激波를 던졌고 이것을 起點으로 하여 金錫亨은 韓半島(南北韓)을 代表하는 史學者인양 日本史學界의 注目對象이 되었다.

「선데이每日」(日本週刊紙)는 「古代史探究·日本民族과 朝鮮民族의 수수께끼」라는 題下에서 金錫亨의 「日本分國論」을 크게 다루면서 「金氏는 朝鮮史學의 第一人者」라고 激讚하고 있다.

脚說·金錫亨이나 李址麟 或은 「広開土王碑文研究」를 쓴 朴時亨 등의 著述活動은 韓國史學界에 對한 間接挑戰이오·威脅的 存在라 할것이다. 그러나 金錫亨에 關해서 稔然치 않은 「事件」이 있다. 지난 73年8月11日字 東亞日報가 「樂浪古墳等 發掘努力旺盛」 「最近의 北傀考古學界」라는 題下에 日本 「아사히」新聞 73年 8月7日字 夕刊에 紹介된 아끼야마(秋山) 記者와 北傀·金錫亨과의 「인터뷰」記事를 실었는데 이에 依하면⁵⁾ 金錫亨은 「樂浪古墳이 朝鮮人

5) 東亞日報(73.8.11)가 「樂浪古墳等 發掘努力旺盛」 「最近의 北傀考古學界」라는 題下에 日本 「아사히」新聞 73年8月7日字 夕刊에 紹介된 아끼야마(秋山) 記者의 北傀社会科学院 歴史研究所長 金錫亨과의 「인터뷰」記事에 依하면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의 무덤』이라고 밝히고 그의 著書「朝鮮通史」(62年度)의 主張을 뒤엎을 可能性을 示唆했다. 또 「遼東地方에서 樂浪古墳을 發掘했는데 大規模의 殉葬者가 있는 것으로 보아 相當한 規模의 國家權力이 存在한것으로 推測한다 云云」하고 마치 樂浪이 遼東에 있는 것처럼 煙幕을 쳤으나 정작 그의 著書「朝鮮通史」는 日本植民史學「朝鮮史」의 主張을 앵무새 마냥 되풀이하며 「樂浪은 平壤地區에 자리잡고 한때 漢四郡의 勢力이 擴張되어 黃海道地方에는 真番郡・帶方郡等이 자리잡게 되었다 云云」(62年度版・朝鮮通

- (1) 韓國戰爭이후 北傀考古學界는 數十個의 樂浪古墳을 發掘「遼東半島의 한 古墳(樂浪古墳)에서는 一百名 以上을 殉葬한 墓를 發見했으며」平壤近郊의 「고문물」先史遺跡地에서는 熱帶動物인 코뿔소의 뼈를 파내는 注目할 成果를 얻었다고(註: 原本 그대로 轉載)
- (2) 北京의 周口店과 비슷이 石灰岩洞窟로 이루어진 「고문물」遺跡地를 旧石器時代 前期四, 五十萬年前의 것으로 測定한 金錫亨은 特히 「樂浪古墳이 朝鮮人의 무덤」이란 見解를 밝혀 從來의 通說(著者 註: 이 通說은 朝鮮史의 半島史觀通說이다)을 뒤집을 可能性을 示唆했다. 그는 또 前記 遼東의 樂浪古墳에 大規模의 殉葬이 있는 것으로 보아 「相當한 規模의 國家權力」이 存在한. 것으로 推測했다.(後略)
- (3) 60年代 初에 「分國論」을 主張(註: 日本이 韓國의 分國「양키」라는 主張) 日本의 任那伽耶 支配說을 正面으로 否定하고 韓國人이 거꾸로 日本列島를 支配했다는 見解로 注目 받은 金錫亨은 自身이 著述한 「朝鮮通史」는 今年末 修正版으로 增刊될 것이라고 말했다.

史) 하였다.

北傀史學의 偽裝術과 政治的 - 꼭둑각시「正體」를 暴露하는 奇怪한 右顧左眄(면) 이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樂浪을 오늘날의 中共領域인 遼西地方이라고 帶方·真番을 遼東地方이라고 直言할 勇氣가 나지 않은 것이다. 바다 건너 日本에 대해서는 分國論까지 拳論한 金錫亨이가 共產上典國인 中共에 대해서는 不敬罪를 저질른다는 政治的杞憂때문에 이따위 論理不在의 妄說을 늘어놓았다. 北傀史學의 이따위 「小心한 配慮를 "타겟트"(攻擧目標!)로 하여 韓國의 正統史學이 攻勢를 取한다면 北傀의 偽裝的 民族史學은 馬脚을 露出하고 말것이다. (此項은 後詳述)

北傀史家·李址麟도 그의 著書「古朝鮮研究」에서 古代史의 核心部分인 漢四郡의 項目을 別途로 設定하지 않고 (이것은 注目을 要하는 事實이다) 「樂浪」 「玄菟」 「真番」等 「四郡之事」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涇水考」「遼水의 位置」等を 論述하는 項目에 끼어넣어 操心스럽게 다루고 있다.

비록 政治的配慮때문에 操心性있게 다루긴 했지만 漢四郡을 半島 外廓으로 逐出하는 基本感覺만은 잊지 않고있다.

이제 李址麟의 「古朝鮮研究」一節을 紹介한다. 그의 「遼東·遼水考」에서

- (1) 遼東이란 地域名은 決코 性急하게 오늘의 地理的概念으로서 즉 오늘의 遼河의 東쪽이라고 解釋해서는 안된다………

(2) 張守節은 史記·蒙恬 列傳에서 「遼東郡在遼水東·始皇築長城·東至遼水西·南至海之上」이라고 썼다. 그는 奏長城이 遼水西쪽 海上에 이르렀다고 썼다. 이 遼水는 唐代의 遼水인 것이다.

(3) 「晉書 14 卷·地理志·樂浪郡遂成縣」 「注」에는 「秦築長城所起」라고 썼다. 「通典 186 卷 辺方二 東夷 高句麗」條에는 「碣石山在漢樂浪郡遂成縣·秦築長城·東截遼水起於此山·今驗長城東截遼水 而入高麗·遺跡猶存」이라 했다. 즉 「晉書와 通典은 秦長城의 東端을 樂浪郡 遂成縣이라고 設定하였다」

結局 李址麟은 遼水를 論하면서 樂浪郡 遂成縣의 位置를 오늘의 北平東南쪽 海岸-山海關南쪽海岸인 碣石山附近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正論이다.

이나라의 碩學 李丙燾博士는 그의 近著 韓國古代史研究에서 「樂浪郡 遂成縣을 黃海道北쪽 「遂安」이라고 比定하고 싶다」고 當치 않은 希望(?)을 述懷했다. (同書 p 148)

噴飯大笑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 놓고 웃어 넘길 얘기만은 아니다. 北魏史學도 이미 10餘年前에 과해치고 있는 植民史學의 陰謀를 이나라 碩學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잠꼬대같은 녀두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차라리 슬픈 이야기이오 몸서리치는 일이기도 하다.

李址麟도 指摘한 「碣石山」史料를 碩學 李丙燾博士는 「晉書의 遂成縣條에서 孟浪한 說이지만 「秦築長城所起」라는 記載도 있다.

이 秦長城說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遼東山이란 名稱과 어떠한 長城址가 있어서 그러한 附會가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記事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同書P 148)라고 했다. 實로 어안이 빙빙하다.

中國正史의 記錄을 「孟浪한 說!」 「터무니 없는말!」이라고 우겨대는 老博士의 執念이야말로 터무니없고 孟浪한 것이다. 일찌기 日本植民史學 「朝鮮史」의 編輯에 直接加担했던 老博士로 부터 「韓國을 韓半島로만 알고 있는 半島史觀」을 根絶하라고 한다면 이는 좀 지나친 注文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李址麟의 「涇水考」(古朝鮮의 涇水位置에 對하여)는 北傀偽裝史學도 이미 「半島史觀」(=植民史觀)을 벗어 던졌다는 實證을 歷歷히 보여준다.

李址麟은 「史記·朝鮮列傳」과⁶⁾ 「魏略」⁷⁾의 史料를 들고나서 다음같이 論했다.

6) 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涇水爲界。屬燕………~~結~~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涇水居秦故空地上下葦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之亡命者王之。都王險………(史記 朝鮮列傳)

7) 朝鮮………後子孫遂弱。燕人衛滿亡命。爲胡服。東渡溟(涇의 誤記)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収中國亡命爲朝鮮藩屏準信寵之。拜爲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滿誘亡黨衆稍多。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求入宿衛。遂還攻準。準與滿戰不敵也
(魏略)

우리는 이資料들에서 다음같은 事實을 알수 있다.

② 涇水는 古朝鮮과 漢과의 國境線이었으며 涇水以東에 真番朝鮮의 領域 - 即 秦의 故空地의 上·下障이 있다는 事實 魏略에서는 燕·秦代 古朝鮮과의 國境線을 滿番汗으로 認定한 것

③ 衛滿은 國境線인 涇水를 건너와서 涇水以東의 秦故空地의 上·下障에 居住하면서 古朝鮮王과 交涉을 進行한 事實 ③ 衛滿이

居住한 秦의 故空地에 居住한 原住民은 古朝鮮人이며 그 故空地는 燕나라 秦開時期(B.C 300年代)에 일시 漢人들의 勢力下

에 놓였다는 事實 ④ 古朝鮮의 王·準은 衛滿에게 百里의 땅을 封해 주었으며 따라서 衛滿이 居住한 秦의 故空地는 約百里되

는 地域이라는 事實 ⑤ 衛滿이 居住한 約百里의 地域은 곧 涇水以東의 百里地域이며 따라서 王儉城과 涇水の 距離는 百里以

上되어야 하겠다는 事實과 其間에는 반드시 어떠한 自然界線이 있어야겠다는 事實 古朝鮮과 漢과의 國境線인 涇水는 반드시

以上에 列挙한 歴史的 地理的 事實과 符合되어야 한다(中略)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許多한 學者들이 涇水の 位置를 論하여 왔으나 아직 正論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涇水와 王儉城의

거리가 百里以上이 되어야한다는 事實 - 萬一 百里가 되지 않는

江이라면 그것은 古朝鮮과 漢의 國境線인 涇水는 決코 아니다.

涇水에 關한 記錄으로서 가장 오래 된것은 「水經」의 記錄이다. 「水經」14卷 涇水編에는 「涇水出樂浪鐵方縣東南過臨涇縣

東入於海」라고 썼다. 古來로 内外學者들이 이 說을 否認하였

다. 그들은 樂浪郡의 數多한 江들 中에서 東南流하여 入海하는 江이 없다는 理由로서 上引한 「水經」의 說을 妄說로 認定하였다 (中略)

「水經」의 注者・麗道元 (역도원)은 「水經」에 「注」를 달면서 古朝鮮領域을 오늘의 平壤을 中心한 地域으로 認定하였기 때문에 「水經」의 涇水記錄을 誤証이라고 하였다.⁸⁾ 그는 위에서 말한 歷史的 地理的事實을 떠나서 自己時代 (後魏時代)의 涇水 (즉 「대동강」)와 漢代의 涇水를 同一視하고 「水經」의 涇水를 論駁하였다. 우리가 「水經」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遼東・遼西의 물줄기를 論하면서 큰 江의 하나인 「大凌河」를 論하지 않는데 對하여 疑問을 품지 않을수 없다 (筆者註 李址麟은 涇水를 大凌河로 断定했다) 그리고 또 万一 涇水를 大同江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鴨綠江을 叙述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疑問이 생기게된다. 「水經」이란 책은 中國의 江들에 關한 記錄이지 外國의 江을 記錄한 冊이 아니다.

8) 「水經注」의 涇水記錄

涇水出樂浪鎮方嶺東南過於臨涇嶺東入於海에 對한 麗道元의 注는 다음과 같다.

武帝元封二年

遣樓船將軍楊僕左將軍荀彘討右渠破渠於涇水遂滅之 (若涇水東流無渡涇之理其地今高句麗之國治余訪蕃使言城在涇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嶺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故地理志曰涇水西至增地嶺入海又漢興以朝鮮為遠循遼東故塞至涇水為界考之今古於事差謬蓋經誤証也

우리는 「水經」에 있는 「涇水」記錄을 간단하게 抹殺할 수 없다" 라고

以上에서 北傀·偽裝史學의 限界性을 알았다. 北傀의 上典國인 中共領土와 有關於 歷史記述은 이를 되도록이면 迴避하려는 政治的인 配慮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民族史學-民族史」보다도 「政治」-政治理念에 優先順位를 두는 共產主義特有的 生理를 外面할수 없다. 學問보다 政治를 앞세우는 北傀史學!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民族史學이 偽裝劇으로 存立하여온 本來의 「生理」와 「本質」을 雄辯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北傀의 이같은 偽裝史學에 對한 對策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戰列을 가다듬는 一大反省-一大整備作業을 서둘러야 겠다. 바로 지금은 「史學·對·史學」의 血戰期-非常時局이기 때문이다.

(다) 反省과 對策

~實證史學은 自己陶醉에서 脫皮해야~

<反省>

偽裝史學의 類型中에서 오늘날 韓國의 「實證史學」마냥 그 偽裝術이 뛰어난 名手는 없다. 實證史學의 概念과 學問的領域도 알지 못하는 似而非史家들이 社會科學 考古學, 世界主義史學, 「휴머니즘」等 眩亂한 看板을 앞세우고 虛張聲勢를 일삼는다.

그러나 實質史學이 어디 따로 있는가?

況且 實證史學을 民族史學의 對抗史學이거나 代替史學인줄 아는가? 悠久한 民族史와 함께 起伏을 같이하여온 史學의 唯一한 實存은

「民族史学」 外에 없다. 더우기 韓国과 같은 单一, 純粹한 「民族国家」에서는.

民族史学이 걸어온 歷程에서 各時代가 갖고 있는 時代的 성격이나 傾向에 따라 民族史学은 그 研究하는 方法이나 傾向을 달리 하여 왔다. 이것은 事實이다.

前近代史学時代에는 中華的인 宇宙觀에 依해서 民族史学을 論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事大主義時代로 区分짓고 民族史学의 主体性을 잃은 受難期로 본다. 日本植民時代에는 日本植民主義의 利益을 絶对価値觀・絶对基準으로 하였기 때문에 民族史学이 유린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時代를 「民族史学」의 亡命→断絶期라고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実証史学」은 「民族史学」을 研究・記述하는 「오늘의 方法이나 傾向」에 不過한 것이다. 「民族史学(主体)」을 떠나서 実証史学이 따로 存立하거나 民族史学을 代替하는 「오늘의 史学」이 実証史学이라고 錯覺해서는 안된다. 率直히 말해둔다.

実証史学이라는 「懸垂幕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群像들은 外敵에 依해 篡奪(찬탈)당한 「滿身瘡痍의 韓国史現實」을 外面하고 도리어 「韓國史의 加害者」便에서서 「萎縮・歪曲・汚染된 韓國史를 「光復」할 생각은 않고 이를 「既定事實化!」하고 「合理化」하려는 害国分子들이다. 우리는 이같은 事態의 実証으로 国定国史의 編輯指針을 例挙할 수 있다. 国定国史(高校用)는 "朝鮮史"(植民史觀)의 編輯指針을 그대로 複写하여 「韓國古代史」(「檀君」→「新羅滅亡」까지 「三千二百五十年間」)를 一編「古代社会」에 収録

하면서 国定国史·全体紙面 229 p의 「五分之一인 48 페이지를 割当했다. 4309年間의 韓國史時幅에서 古代史 3,251年을 控除한 1,058年の 「韓國史의 萎縮·受難部分」(中近世史)을 "크로즈·업" 하여 「二編, 高句麗時代」에서 「五編現代社会」까지 181 페이지를 割当했다. 侵略·受難·恥辱·敗北·挫折로 点綴된 中近世史(1,058年)만을 韓國史로 認識시키려는 倭놈들의 植民哲學을 이렇게 充實하게 複写·再顯시킬 必要가 奈辺에 있었던가?

< 参考 > 国定国史 一編 古代社会

- ① 先史時代의 文化~~~~~ 3
- ② 部族國家의 成長~~~~~ 9
- ③ 三國時代의 發展~~~~~ 17
- ④ 三國時代의 社会와 文化~~~~~ 27
- ⑤ 統一新羅와 渤海의 發展~~~~~ 42
- ⑥ 統一新羅의 文化~~~~~ 48

況且 「韓國史의 榮光」部分인 檀君朝鮮(古朝鮮)~高句麗建國~三韓까지의 (위「参考」의 ①과②) 歷史 2,300年間을 16 페이지로 줄여 놓았다.

이 「16 페이지」의 內容도 韓國史의 榮光部分은 徹底하게 去勢되고 中國史筆과 日本史學이 捏造한 敗北·滅亡의 記錄으로 가득 채웠다. 東西洋史를 다 涉獵해 봐도 이렇게 恥辱史만을 選別하여 國史를 채워버린 國史編輯指針은 없는 것이다. 果然 하늘아래 들도 없는 怪怪罔測한 事例다.

国定国史의 編輯方向을 「実証史学」과 結付시켜 論駁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国史政策을 樹立하고 国定国史를 써온 大部分의 学者들이 「朝鮮史」를 信奉하고 「朝鮮史의 洗腦教育만을 받아들인 学者들과 그 弟子들이 었다는 事實」과 連関된다. 解放後 자들은 自己學問의 偽裝을 위해 保護色看板으로 들고 나선 것이 「実証史学」이었다. 이제 国定国史의 上古史部分이 저들에 의해 어찌 蝕여졌는가? 를 살펴보면 자들의 正體를 알수있게된다. 国定国史 「古朝鮮의 成長과 그文化」(P9)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桓雄과 곰의 變身인 女人사이 에서 出生한 檀君王儉이 古朝鮮을 建國하였다는 檀君神話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古朝鮮을 神話時代로 돌려버림으로써 韓國史의 時幅을 半減하려했던 「朝鮮史의 陰謀」에 同調하고 있는 것이다.

또 国定国史는 上古史의 敗北記錄만을 浮刻시켜 記述하여 「朝鮮史」의 論旨를 追認했다.

古朝鮮은 BC三世紀項 戰國七雄의 하나인 燕나라와 對立하여 氣勢를 떨쳤으나 그 侵入을 받아 「랴오둥」(遼東)地方을 상실(喪失)하면서부터 弱해졌다. ~한편 漢은 古朝鮮이 自己네들의 貿易을 妨害할 뿐아니라 東方侵略基地인 遼東郡을 威脅하였으므로 大軍을 이끌고 侵入하였다. 古朝鮮은 이에 對抗하여 一年間이나 싸우다가 王儉城이 陷落되면서 亡하고말았다(BC 108) ~그리하여 交通路의 分岐点인 통코우(通溝)地方에는 玄菟郡을 古朝鮮의 옛地域에는 樂浪郡을 그 남쪽 漢江以北에는 真番郡을 그리고 元山港 一帶에는 臨

屯郡을 設置하였다 (国定国史 11 페이지)

韓國古代史에 配當한 16 面의 紙面마저도 ' 黃河文明을 開拓한 主人公 ' 의 榮光과 中原大陸・滿洲大陸을 席捲한 東夷겨레의 武力 ' 따위 祖国史의 ' 榮光 ' 과 偉大의 記錄은 外面하고 敗北主義의 ' 落穂 ' 만을 고르고 뒤져 이 紙面을 채우고 있다. 勿論 上引한 「燕나라 秦開의 侵入事件」⁹⁾ 이나 「漢四郡事件」같은 것도 모두 針小棒大의 曲筆이다. 「勝利와 敗北」 「侵略과 降伏」 「榮光과 恥辱」을 꺼꾸로 적은 ' 史學의 斯文亂賊 ' 같은 것임을 이미 指摘한바 있다. 上古史外面의 이런 国史觀은 上古史學徒를 ' 不逞鮮人¹⁰⁾ 視하고 投獄追放하던 朝鮮總督府時代의 国史指針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다. 實質的인 韓國上古史를 16 「페이지」안팎으로 (그나마 汚染투성이로) 적고 「高麗社會」 「朝鮮社會」 「近代社會」 「現代社會」를 二百餘「페이지」로 割當한 国定・国史의 哲學(얼)不在! 實로 어안이 빙빙 할지경이다. 日本植民主義의 「上古史忌避政策」이 光復 30 年 (1 世代) 이 지난지금까지 그 威力을 誇示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現實이다. 이리하여 「政治(主權)光復!」 「国史(얼)未光復(亡命中!)」이라는 「極限狀況」이 竝立하고 있는 「아이로니!」

9) 其後燕有賢將秦開。為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與荆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史記・匈奴列傳・第 50)

10) 朝鮮獨立運動을 하든 朝鮮人들을 ' 후메이센정 ' (不逞鮮人) 이라고 辱稱하던 倭말

가 있는 것이다.

却說 오늘의 「韓國史」가 立脚한 現況을 診斷해 본다.

- ① 上古史 不在狀況・上古史 輕視狀況
- ② 國史(民族史)의 榮光보다 恥辱에 力點을 두는 異狀氣流
- ③ 大陸史四千年間을 排除하고 半島史1千年을 浮刻시키는 價值觀
混迷
- ④ 「來日의 韓國을 어떤나라로!」하는 未來 指向的 「유토피아」
를 外面 "비존" 缺如.
- ⑤ 在來 1,000年間의 世界가 보아온 汚染된 韓國觀에 普遍妥當
性 合理性 科學性을 賦與하여 既定事實化하려는 過去指向型
- ⑥ 「朝鮮史의 植民史哲學」을 「實証史學」이라는 偽裝商標로 置
換한 自家撞着(당착)
- ⑦ 「韓國觀」을 客觀化하여 第三者的立場에서 韓國(祖國)을 觀
照하는 姿勢를 史學의 王道로 알고있는 世界主義
- ⑧ 「國史亡失」의 現實을 認定치 않으며 國史光復運動을 前近
代史學이라 白眼視하며 非正規史學이라 規定하는 盲目性
- ⑨ 植民地時代의 歷史教育履修를 「正規史學」으로 自負하는 價值
觀과 時局觀의 錯亂
- ⑩ 國史時幅 2千年 國史疆域은 韓半島 國史精神은 敗北主義 或은
고작 잘表現하여 「試練과 克服」(「國定國史」解說書의 題目-中
高敎用)이라고하는 概念(祖國觀)의 捕虜가 된 中毒史觀
- ⑪ 史劇・歷史드라마・歷史小說等 「매스・미디어」의 素材는 近

代史・敗北主義恥辱史로 一貫되는 (一貫될 수 밖에 없는) 哲学不在

⑫ 民族史학의 時効完成(停止!)를 公言하는 民族史學 否認論者들에게 「主体的民族史觀定立」作業을 下請하고(当局이) 이런 缺格事由를 지닌 民族史學否認論者들이 口술에 침도 칠하지 않고 民族史觀確立・民族史正統性云云을 高揚하는 「거짓말」과 矛盾 民族史觀을 御用看板으로 내어건 猪頭狗肉의 假面劇 .

슬프게도 이것이 韓國史의 病的症勢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北傀의 民族史學에 對한 挑戰과 그 限界性을 알아 본바 있다.

北傀의 史學挑戰(例「民族史의 正統性競争」)이 熾烈하면 할수록 北傀의 挑戰에 攻擊口實을 提供하거나 脆弱點을 露出시키는 自害要素 利敵事項은 時急히 除去되어야 한다. 이를 爲해서도 오늘날 實証史學이라는 看板을 盜用한 史學運動에 大悟一醒하는 轉機가 있어야겠다.

두말할것도 없이 共產主義 - 唯物史觀과 乾坤一擲의 死鬪를 벌릴 唯一敵手・그리고 가장 致命的인 強力한 敵手는 「民族史學→民族史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共產主義는 世界到處에서 民族主義를 打倒하기 爲한 強力하고도 緻密한 戰略과 陰謀를 進行시키고 있는것이다. 血緣社會・地緣社會 그리고 人間本然의 意識構造 속에 깊숙히 뿌리 박고 있는 民族意識을 破壞하기 爲하여 저들은 世界(國際)主義를 高揚하고 「民族」에 代替하는 「人民」이라는 概念

을 扶植하기에 專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計算은 잘못되어 있다. 民族意識은 人爲的으로 創造해 낸것도 아니요 또 人爲的으로 扞拭해 버릴수도 없는 「人間의 屬性」이기 때문이다. 政治理念上的의 「必要에」 依해 抹殺해 버릴수 있는 有機物質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共產主義와의 對決에서 우리가 「民族史學 - 民族史觀」만을 올바르게 堅持하는 限 - 本質的으로 우리는 勝利할 수 있는 絶對的可能値가 있다. 지난날 共產主義가 自由民主主義를 打倒하는 戰略으로 「民主主義」의 偽裝看板을 盜用했듯이 오늘날 저들은 民族主義의 打倒를 爲해 「民族史學」을 假裝하고 「民族史의 正統性競爭」을 하는 樣・煙幕戰術을 편다. 問題의 深刻性은 바로 여기에 있다.

共產理念의 世界(國際)主義는 그哲學・唯物論과 唯物史觀에 뿌리박은 本質的인 것이다. 物質에 民族性이 排除되듯이 物質을 万有의 窮極的實在라고 믿고 精神的 觀念的 諸現象까지도 物質에 依해서 規定된다고 믿는 「唯物論」에 「民族性」따위가 있을 수 없고 있다면 그 物質이 있는 世界・宇宙의 「場」이 있을 뿐이다.

또 唯物史觀은 「人類」(!)의 歷史를 物質的生活 곧 經濟關係로만 把握하고 精神的活動 物理的生活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보고 經濟的關係에서 일어나는 「階級鬭爭」이 人類歷史의 根本이라고 믿는 歷史觀이다. 世界는 「理性的 辯證法的發展」이라는 「헤겔의 辯證法」에 對抗하여 人間의 意識에서 獨立하여 存在하는 「現實의 辯證法的發展」이라는 것이 있고 辯證法은 그 反映에 不過한 것이

라고 보는 唯物辯証法! (=世界觀·方法論) 이것을 社会生活의 研究에 導入한것이 唯物史觀이다. 唯物哲學의 어느 구석에서도 民族理論이 새솨을 餘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北傀의 民族史的正統性 民族史的 主体意識 따위는 唯物史觀의 教條的인 立場에서 볼때 修正主義的 異端냄새가 짙게 풍기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共產主義의 世界(國際)主義的 立場은 그 哲學의 本質에서 淵源하는 것이오. 民族主義는 本質에 違背되는 戰術·戰略 或은 言語的曲芸(前述)로서 存立한다. 北傀의 「主体性!」「主体意識!」은 金日成偶像化体制!」라는 別個의 概念으로 通한다. 最近에는 北傀外交官의 麻藥密輸事件과도 通하는 概念이다. 唯物史觀이 世界(國際)主義에 立脚한 以上 「祖国觀이나 民族史觀을 客觀化하여 第三者的立場에서 祖国(民族史)를 觀照하는 姿勢」는 이나라의 實証史學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1.2 次世界大戰은 主觀的이고 排他的인 國粹主義者(民族主義者)들이 挑發한 悲劇的인 大戰이 었다. 그렇기 때문에 大戰後의 「國際聯盟」(1919年)→「國際聯合」(1945年)은 民族主義를 戰爭犯罪者로 規定하는데 成功을 건우었다. 그러나 이는 平和를 愛好하는 世界人類의 「勝利」를 뜻하는 同時에 共產主義世界戰略의 「勝利」라는 또 하나의 다른 意味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 果然 世界는 共產主義者들의 世界戰略대로 「民族主義」 심지어 「人間本然의 意識構造속」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民族意識」마저도 罪惡視하는 氣風이 普遍化되고 既定事實化되고 있다. 더욱 「아이로니칼」

한것은 自由陣營의 總帥國인 「北美合衆國」이 民族主義와는 緣故가 먼 世界主義國家라는 事實이다. 또 한편으로 1. 2次世界大戰에서 「誇大妄想」에 사로잡힌 民族主義(나치즘·파시스트·日本軍國主義) 때문에 쓰디쓴 敗戰의 맛을 본 나라에서 國粹主義에 對한 嫌惡感이 本能的으로 高調된 것이다.

그리하여 「民族主義」(民族史學도 여기 包含된다)는 依例 民族史를 我田引水格으로 誤導誇張하고 人類文化에 挑戰하는 鬪爭史學에 立脚한 것이라고 烙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實證史學도 이같은 世界的 反民族主義 氣流에 便乘한 「便衣隊」다. 그러나 民族主義를 誇張史學의 分身처럼 規定하는 오늘의 通念은 不可不 矯正되어야 하고 또 矯正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 証拠로 民族意識이나 民族主義를 阿片처럼 嫌惡·忌避하는 共產主義者들이 "民族史學"이나 "民族史의 正統性"을 看板처럼 들고 나서는 異常現象을 指摘할 수 있다. 이것은 國際적으로 墮落雛勢를 보이던 民族主義에 對한 人氣(?)가 回復期에 접어들었다는 徵候를 示唆하는 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共產主義가 民族主義의 偽裝看板을 달아야 할만큼 民族主義에 對한 世界思潮가 改善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世界的史學雛勢에 가장 敏感하다고 하는 이나라의 實證史家들은 아직도 世界史의 展開패턴을 體得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民族史學은 政治指向의이고 愛國心을 일으켜 行動으로 이끌 目的을 갖기 때문에 事實을 美化하고 歪曲하기 쉽다" (全國

歴史学大会・71年度・梁秉祐教授)라고 民族史学을 規定 짓는다. 그러나 既述한대로 이런 主張은 時効가 지난 主張인 것이다. 저들은 繼續해서 말하기를

“丹齋는 「歴史를 我와 非我的 鬪争의 記錄」이라하고 「我 가운데는 我와 非我が 있다」고 했다. 또 그는 「歴史를 버리면 民族에게 國家觀念이 적을것이니 歴史家의 使命이 얼마나 큰가?」라고 말하면서 愛國의 立場을 強調했다. 民族史는 우리에게 獨特한것이 아니고 世界史的 現象의 一環이며 유럽이 먼저 世界史擴大活動을 한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있을 뿐이다 라고했다. 이처럼 유럽 禮讚論과 世界史의 立場을 展開하고나서 다시 民族史學의 先驅者 丹齋를 批判하여 가로되 「그의 國粹主義的 歷史觀이 批判的 近代史學을 成立시켰다」 그러나 「我만을 固執할때 獨逸의 滅亡이 있었던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사뭇 警告調의 攻駁을 한다. 그러나 西歐人의 史眼으로 韓國史를 보는 實証史學의 立場이야말로 危殆롭다. 梁教授는 먼저 다음을 留意했으면 한다.

- ① 韓國史는 「我」만을 爲해 「美化」「誇張」되기커녕 「他」에 依해 「汚染」「萎縮」된 歷史라는 事實.
- ② 獨逸・日本・伊太利……等은 「我」만을 固執하다가 國亡史滅의 禍를 當했지만 韓國은 도리어 「我」를 喪失했기 때문에 亡했다.
- ③ 肥滿症(誇張史學-國粹主義)과 瘦瘠症(植民史學-事大主義)의 治療処方은 다르다.
- ④ 實証史學의 標語(「그것이 本來 어찌 있었는가?」……랑케)

는 韓國史光復의 方法(原則)으로 堅持되어야 한다.¹¹⁾

⑤ 「史學→史觀」은 鬪爭을 前提한다. 丹齋의 「我」와 「非我的鬪爭！」은 正論이다.

⑥ 外國이 試行한 民族史學은 國粹主義(失敗作)로 끝났다. 國粹主義는 外國의 民族史學이 試行錯誤로 빚은 「畸形兒」다.

⑦ 韓國史에는 「我」가 自主的 主体的으로 開拓한 民族史學時代가 없었다. 또 그러한 近代史學도 없었다. 그러므로 民族史學은 韓國이 主体的·自主的으로 開拓해야 할 오늘의 史學인 것이다.

⑧ 歷史를 보는 「눈」은 「韓國」이 「主」가 되고 「先」이 되어야 하며 西洋(世界)이 「從(參考)」이 되고 「後」가 돼야 한다.

⑨ 民族史學→民族史觀만이 共產主義(北傀)를 이길수 있는 「體制的武器」다.

⑩ 韓國史가 追求하는 「民族主義」는 누가 뭐라고 해도 韓國史의 本質(弘益人間)때문에 國粹主義化 될수 없다. 이것이 韓國史가 自負하는 矜持이다.

以上은 共產主義의 史學的挑戰에 對備해서 오늘의 韓國主流史學(實證史學)이 大悟覺醒해야 할 主要課題이다.

11) 國史光復도 實證的次元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 对 策 >

이제 積極的으로 韓國史学界 및 歷史政策이 北傀의 偽裝史學을 어찌 攻略해야 할 것인가를 論述코저 한다.

이미도 指摘한바와 같이 北傀는 民族史學을 假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偽裝史學이 넘어설수 없는 學問的 限界性과 缺陷(虛點)이 있다. 韓國民族史學이 北傀史學을 攻擧해야 할 「타겟트」가 바로 이점이다.

實例를 든다. 周知하는대로 殷나라(BC 1766~1122)의 古墟(中國河南省)에서 出土된 甲骨文字(殷나라 文字 - 東洋最古의 文字)를 研究한 結果로 "黃河文明은 朝鮮族의 것이다" 하는 在來의 文學的考證(本書第三編④參照)이 考古學的으로 立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北傀史學은 政治的配慮때문에 이를 擧論하지 못하고 沈黙을 固守한다. 이 같은 北傀史學은 學問보다 政治優位를 앞세우는 「自己矛盾」의 表現이다.

또 唯物史觀은 「宗教」를 否定한다. 그렇기 때문에 東洋三大宗教인 仙·佛·儒의 發祥地가 「古朝鮮」이라는 事實도 굳이 外面해야 한다. 文學的(史料的)考證에 依하면 儒敎의 大宗師「孔子」는 "當然히 東夷人"이다. 그런데 中共에서 한때 「批林批孔運動」이 「文化革命」의 號를 쓰고 번져나갈때 北傀는 錯雜한 心情으로 "彼岸의 불"을 구경만하고 있었다. 또 누가 뭐라고해도 東洋上古史는 狩獵族인 東夷(肅慎 - 東胡 - 靺鞨)의 圧倒的인 武力(楛矢·石鏃)이 農耕族인 漢族社會를 支配한 歷史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中国의 歷代古典이 立証한다. 뿐만아니라 中国大陸을 「東西」 「南北」으로 貫通하는 史上最大의 防禦障地(施說)인 「万里長城」과 「隋煬帝의 運河」가 東夷武斷의 偉大性を 雄辯하는 地上工作物인 것이다. 그러나 北傀史學은 「万里長城」과 「隋煬帝의 運河」를 東夷武斷의 榮光으로 高揚할 勇氣가 없다. 이러한 北傀史學의 脆弱點은 「民族史學」을 偽裝하는데 있어 避할 수 없는 致命的缺格要因임은 勿論이다. 그렇지만 現在로서 北傀史學의 脆弱性이나 學問的 限界性이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問題는 이러한 脆弱性·限界性を 지닌 北傀의 偽裝史學마저도 制壓하지 못하는 韓國主流史學의 混迷相에 있다. 비록 徹底하거나 完璧하지는 못하지만 北傀史學은 漢四郡疆域이나 涇水位置따위를 韓半島밖으로 이미 逐出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萬一北傀가 南北史學의 實態를 奇貨로 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南北民族史學者會議」같은 ~~것을 먼저~~ 提案해 온다면, 우리側은 이를 어찌 對處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 할 노릇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찔" 할 事件은 이미 있었다. 日本에서 高句麗壁面風의 高松古塚壁面가 發見되었을 적에 南北의 學者들은 異域日本의 땅에서 對座한 일에 있었다. 北傀史學者들은 着日 첫날부터 "高松古塚壁面는 高句麗사람의 것"이라고 氣焰을 吐했다. (勿論 이것은 「正論」이다) 그러나 當時의 아찔했던 狀況을 되뇌고 싶지는 않다.

問題는 오늘도 持續되고 있는 韓國主流史學의 旧態依然한 混迷相이다. 그런데 오늘의 實證史家들이 座右銘으로 삼을 教訓이 여기에 있다. 첫째로 韓國史는 植民史學에게 유린된 채로 아직도 「主體」를 回復하지 못한 史學이 라는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史의 客觀化」或은 「客觀的인 韓國史觀」 「世界史的인 韓國史」等 「主體아닌 客體」를 論하기에 앞서 「韓國史의 主體」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大前提이다. 「나」라는 「主體」를 먼저 찾아 놓고 世界史가 보는 韓國史觀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다.

둘째로 韓國史는 光復돼야 한다. 그러나 國史光復은 당연히 「實證」을 上廻하거나 實證을 未達하지 않는 線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主觀에 흐르지도 않고 韓國史의 個性이 흐려지고 極度로 客觀化하지도 않는 合理性・科學性・普遍性的의 土台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實證史學」은 國史光復을 겨냥한 「民族史學」의 指針이요 手段인 것이다. 이러한 實證史學을 排除外面하고 民族史學과 對峙되는 또하나의 「實證史學」이 存在하는 것으로 錯覺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韓國史의 汚染・亡失은 上古史部分에 局限된 것이라고 (極端的 表現을) 해도 無妨하다. 또 韓國史(現在의)는 「榮光」과 「恥辱」 兩者中에서 「榮光」을 버리고 「恥辱」만을 摺一하여 集大成됐다. 이것은 지난날 植民史學의 指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國定國史를 비롯한 이나라의 諸史書는 上古史에 置重하고 榮光

開發에 「액센트!」를 뒤야 한다. 이 너무나도 當然한 大原則이 無視된채 國定國史를 비롯한 諸史書가 마구 出服되고 있다.

實로 南北對決·平和的國土統一이라는 宿題를 안고 있는 韓國에 있어서 國史研究는 民族史學의 學問的領域을 훨씬 超越하는 莫重한 使命마저도 지니고 있다.

왜? 오늘의 韓國民族史學은 平和的인 國土統一을 겨냥한 理念鬪爭에 있어 不可避·不可缺한 唯一手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北傀의 史學挑戰에 對한 對備策은 따로 있을 수 없다. 對備策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韓國史學主流의 「大覺一惺」일 뿐이다. 韓國의 史承(史學主流)이 民族史學의 王道와 그 隊列속으로 謙虛하게 復歸·歸順하는 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北傀史學의 致命的인 脆弱性을 向해 勝利와 祖國統一이 保障된 最後의 大會戰을 期約할 수 있다.

韓國上古史의 참된 "榮光과 偉大"를 파헤쳐서 韓國民族史가 中原大陸→滿洲大陸→蒙古大陸→그리고 蘇聯領域에 亘하는 大疆域에서 펼쳐지는 大로망(浪漫)을 展開시킬때 北傀史學의 偽裝性·그 脆弱性은 드디어 馬脚을 드러낼 것이다. 民族史學·民族史觀이야말로 南北으로 分斷된 祖國에 民族의 同質性·同質感을 불러 이르는 祖國統一의 架橋가 될것ियो "피(血)는 물보다 길다"는 造物主의 撰理를 實証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歷史의 時空속에서 祖國의 無血統一을 爲한 理念的 體制的武器로써 「民族史學→民族史觀→國史光復」의 時急함을 呼訴한다. 비록 이말이 荒涼한 「曠野에

「메아리치는 소리」 일망정 祖国統一의 里程表 위에 붙이는 「先知的 豫言」의 口實은 足히 하리라 믿는다.

「祖国이여 國史를 光復하라! 歷史여 祖国을 되 돌려 다오!」

이제 北傀의 偽裝的 民族史學이 그 理念上의 理由와 政治的 配慮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韓國上古史의 참된 榮光과 神秘를 파헤쳐 본다.

(3) 平和統一의 理念的 体制的 武装 「民族史觀」

~韓國史의 真相~

우리는 위에서 北傀民族史學의 偽裝性과 限界性 그리고 脆弱點을 알아냈다.

이제 北傀가 共產主義理念이나 唯物史觀을 拋棄하고 自由友邦으로 轉向하지 않는限 그理念的 限界性이나 政治的配慮 때문에 接近할 수 없는 韓國古代史의 固有領域의 開發로 進入해 본다.

그런데 미리 밝혀 둘 두가지 前題가 있다. 첫째, 「韓國文化는 中國史(文化)의 支流다」하는 從來의 通念, 또 「東洋文化의 正鵠은 中國이다」하는 在來의 通則이 止揚되어야 한다.

둘째, 「韓國史는 敗北와 恥辱으로 얼룩진 歷史다」하는 敗北主義的 祖國觀은 扞拭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大前提를 놓고 韓國史의 未公開分野(上古史)인 「固有領域」의 門戶를 열어보자.

<韓國史의 真相>

(가) 「漢四郡=朝鮮四郡國」의 正體

~漢四郡은 歪曲史의 一部分에 不過하다~

「開拓의 榮光」이 「敗北의 恥辱」으로 탈바꿈한 祖國史!
黃河文明의 主人公이 大陸文物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乞人으로 描写

된 祖国史! 半萬年史의 4/5 (4,000年)가 展開된 大陸史가 去勢되고 1,000年의 半島史觀만이 浮刻되는 祖国史의 非理! 이같은 祖国史의 非理 가운데 「勝利」가 「敗北」로 歪曲된 「漢四郡의 犯罪」가 그 圧卷이다.

이제 그真相을 公開한다.

韓國史의 歪曲 變質을 拳論하자면 限이 없다. 그러므로 위선 韓國上古史의 最大争点으로 浮刻되어 있는 “漢四郡의 問題”를 「俎上肉」으로 하여 祖国史의 真相을 가리는 序章으로 삼겠다.

一般的으로 漢四郡을 拳論함에 있어 그 事件의 文献学的原典이라 할 수 있는 司馬遷의 「史記」(「中國二十五史의 鼻祖」 「漢四郡의 主人公인 漢武帝의 史官 - 司馬遷」이 쓴 中國最初の 正史) 朝鮮列傳(第五十五)의 「遂定朝鮮為四郡」이라는 記錄때문에 衛滿朝鮮은 漢武帝가 派遣한 將帥, 揚僕과 旬^{ユウ}_{ユウ}(순체)에게 敗亡하여 그 땅이 漢나라의 植民地 - 漢四郡으로 轉落한줄 안다.

勿論 잘못된 見解이다. 그러나 이같은 그릇된 見解가 成立된 裏面에는 韓國史의 距今1,000年을 支配하여온 愚은 敗北主意主義意識이 짙게 作用하고 있다.

中國의 史筆精神은 本來自國의 恥辱을 숨기며 外國의 榮光을 꺾는다는 이른바 「為中國_{中國} 隳_隳恥 而陋夷秋」의 「春秋筆法」이다. 그러므로 「遂定朝鮮為四郡」의 「定 이 平定」을 意味한다고 해서 「朝鮮을 平定했다」고 額面 그대로 擴大解釋해서는 안된다.

과연 中國史筆은 「史記」以後로부터 二百年後에 쓰여진 前漢書에

서 비로소 「遂定朝鮮 - - - - -」을 「遂滅朝鮮 - - - - -」으로 적기 시작했고 史記原典에는 拳論조차 않은 「樂浪, 臨屯, 玄菟, 真番」의 郡名과 그 疆域(位置)를 敷衍(부연)하기 始作했다.

심지어 司馬相如가 著述했다는 「茂陵書」라는 幽靈書까지 動員하여 漢四郡의 位置를 韓半島에 上陸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다.

지금도 「臣瓚이 引用한 茂陵書의 里數에 依하면 - - - -」하고 이 注書를 金科玉條로 들고 나서는 現役史家들이 많다. 「監屯郡의 郡治인 雋陽이 中國長安(서울)으로부터 六千餘里 或 七千餘里 떨어져있다--」고 注한 이글이 況 그 孟浪한 里數(六千里, 七千里)가 東으로 뻗었는지 西北으로 뻗었는지 明示도 안됐는데 어떻게 江原道 京畿道땅으로 誘導裝置된 彈道彈마냥 韓半島로 來訪했다 말인가?

茂陵書의 著者라고 伝하는 司馬相如是 漢四郡이 設置되기 十年前에 (BC 118 元狩五年) 죽은 者이다. (注. 漢四郡은 元鳳四年 即 BC 108 年の 일이다) 司馬相如既卒, 正義曰狩五年 (BC118 年) 也 (漢書 司馬相如伝)

相如가 그의 死後 十年만에 設置될 予定(?)인 漢四郡의 疆域 位置를 말했다면 茂陵書가 무슨 默示錄인가? 丹齋先生의 말씀처럼 「妖怪談」이랄 밖에 없다.

아무튼 漢四郡의 虛構는 內(內)으로 敗北主義-半島史觀과 外(外)으로 中國史筆과 日本植民史筆이 共同正犯이 되어 꾸며낸 東洋史學上 最大規模의 史的犯罪事件이다.

司馬遷은 漢四郡을 設한 漢武帝의 史官이며 그가 쓴 史記는

漢四郡에 關한 限 傳聞記가 아니라 目擊記 - 從軍記와 같은 것이며
더우기 그는 今上陛下인 武帝의 業跡과 戰功을 針小擗大하여 誇張
著史해야 할 마땅한 義務를 지닌 中國正史의 鼻祖 - 太史公이 아니
던가? 그리하여 그의 「史記」의 「著史方法」 「紀傳體」는

中國二十五史 - 中國 4,000 年史籍의 「典型」으로 傳受踏襲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太史公 - 司馬遷이 今上陛下, 武帝의 漢四郡
戰功을 겨우 「遂定朝鮮為四郡」의 「일곱字」로 때워 버렸다.
그뿐인가?

그의 「史記, 朝鮮列傳」 끝마무리에 「太史公曰」 (自評) 을 붙여
다음과 같이 漢나라의 敗北 (배) 를 歎息했다.

“太史公가로되 衛滿의 孫子 衛右渠는 城의 堅固를 믿고 싸우다가
祖宗의 祭祀를 끊기고 涉何 (人名, 漢人) 는 功을 속여 得名터니
이때문에 이戰役 (漢四郡) 의 戰端을 열고 殺害되었으며 揚僕 (漢의
海軍提督) 은 적은 軍卒을 이끌고 難局에 빠지고 番禺 (과우, 地名)
의 失敗를 後悔하여 獨力으로 朝鮮을 降伏시켜 立功하려 하였으나
되려 疑心을 받게되고 旬^후 (순채, 漢의 陸軍司令官將帥) 는 功을
다투다가 公孫遂와 함께 모두 誅殺되니 兩軍 (揚僕, 旬^후) - 陸海軍
이 모두 恥辱을 당하고 將卒間에 侯로 封해진 者 없도다.

(太史公曰 右渠負固 國以絕祀 涉何誣功 為兵發首

椌船將狹 及難離咎 悔失番禺 及反見疑 旬^후爭勞

與遂皆誅 兩軍俱辱 將率莫侯矣 (史記 朝鮮列傳 第五十五)

그러면 司馬遷의 「遂定朝鮮為四郡」이라고 한 그 四郡의 正體는

어떤 것인가?

從來의 史家들은 의례 이四郡을 「樂浪, 臨屯, 真番, 玄兔」의 四郡이라고 解釋해 왔다. 그러나 漢四郡 戰役의 目擊談이라 할 漢四郡의 原典인 史記原文에는 「樂浪, 臨屯, 真番, 玄兔」 등의 郡名이 登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史記에 登場된 四郡의 이름은 「樂浪, 真番 - - - - -等」이 아니라 燕人の 亡命政權인 衛滿朝鮮政權 内部에 反抗勢力으로 溫存하던 原住民 - 古朝鮮族의 將相들이 세운 四侯國 - 濶清侯, 菽且侯, 湟陽侯, 平州侯 그리고 幾侯이다. 이五郡(侯) 中에 幾侯만은 原住朝鮮人이 아니라 滅亡해 버린 衛滿朝鮮의 末王 右渠의 아들인 「長」의 侯國인 것이다. 그러므로 司馬遷이 「遂定朝鮮為四郡이라고한 그 四郡은 바로 古朝鮮族의 大臣, 將軍(革命主體勢力)들이 滅亡한 衛滿政權의 疆域內에 세운 四郡國을 專稱한 것으로 正確한 記錄이다.

司馬遷은 史記原文에서 「遂定朝鮮為四郡」의 記錄다음에 바로 「封參為濶清侯, 陰為菽且侯, 俠為平州侯, 長為幾侯, 最 - - 為溫陽侯」等 四(五) 侯國의 이름과 侯(君主)의 이름을 밝혔고 「史記, 卷二十 建元以來 諸侯年表 第八」에서도 「樂浪, 臨屯, 玄兔, 真番」의 四郡名은 실지않고 이 四侯國의 이름을 正確히 실었다. 1)

1) 遂定朝鮮為四郡 封參為濶清侯 陰為菽且侯
俠為平州侯 長為幾侯 最以父死頗有
功為溫陽侯 (史記, 朝鮮列傳 第五十五)

특히 「史記, 年表」에 나타난 朝鮮人 - 四侯國의 疆域位置는 모두 渤海 - 山東에 이르는 「燕齊之間」 곧 BC 128年 武帝가 「燕齊之間의 穢貊 朝鮮人들을 買收하여 設置하려했던 蒼海郡의 疆域이었다. 이곳이 바로 衛滿朝鮮의 基本疆域이었음은 再言의 餘地가 없다.

이제 朝鮮人四侯國의 位置를 史記年表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涅陽 (溫陽) - 南陽 ② 平州 - - - - - 梁 父
- ③ 菽且 - - - - - 渤海 ④ 濶清 - - - - - 齊 (山東省)
- ⑤ 幾 - - - - - 河內 (河東)

(「幾」만은 「燕齊之間」아닌 黃河 北岸의 河東이다)

却說 漢四郡戰役은 漢나라 武帝의 勝利로 評價될 戰爭이 아니라 오히려 古朝鮮族 (穢貊朝鮮)의 軍事革命으로 “朝鮮이 勝利한 戰爭이다.

그러므로 有史以來 「漢四郡」이라는 이름으로 僭稱 (참칭)된 이 四郡의 号称은 宜當 「朝鮮四郡國」이나 或은 「穢貊百四郡」 (中國側의 呼稱)으로 改稱되어야 한다.

漢武帝 陸海軍의 敗戰相은 史記, 朝鮮列傳이 昭詳히 밝히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戰役의 論功行賞 및 戰後處理過程에서 漢武帝의 慘敗相이 餘地없이 露出되고 있다.

즉 怪異하게도 이 戰役에 出戰한 陸海軍의 司令官과 심지어 天子 (武帝)의 御命을 携帶, 傳達했던 使者 (衛山과 公孫遂)마저도

모조리 武帝의 손으로 誅殺되고 말았다. 2)

反面 衛右渠 (衛滿朝鮮의 末王) 를 죽인것도 朝鮮人 尼谿相, 参 (人名) 이요. 右渠政權의 後繼者 成己를 죽인것도 朝鮮相, 路人 (人名) 의 아들 最 (人名) 였다. 3) 結局 衛滿朝鮮의 國王 (右渠) 과 그 後繼者 (成己) 를 죽이고 降伏을 받은 戰爭有功者는 漢武帝의 將帥 (楊僕, 荀彘) 들이 아니라 右渠政權内部에 反抗勢力으로 温存, 反目하던 朝鮮人將相들이었다. 一言以蔽之하고 漢四郡戰役은 穢貊 朝鮮人들에 依한 「쿠테타」에 不外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武帝의 軍士들이 끼여들어 朝鮮側革命勢力에 利用當했을 뿐이다.

(2) 中国上古史가 말하는 朝鮮位置

- 韓半島가 아니라 「北京~山東」地方이다. -

上古史学徒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必須事項이 있다.

그것은 中国의 歷史古典들이 言必称 「朝鮮」이라고 指目하는 疆域이

2) 太子 - - - - - 遂不渡淇水 復引歸 衛山報天子
天子誅山 - - - - - 濟南太守公孫遂 - - - - -
而以節召桜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 即命左將君摩下
執捕桜船將軍 並其軍以報天子 天子誅山 - - - - -
左將軍徵至。坐争功相嫉乖計 棄市 桜船將軍亦
坐兵至列口 当待左將軍 擅先從 失亡多 当斬腕
為庶人 (史記 朝鮮列傳 第五十五)

3) 元封三年 (BC 109年) 頁 尼谿相参乃使人殺朝鮮王
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己又反 復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 降相路人之子最 告諭其民 誅成己
以故遂定朝鮮為四郡 (史記 鮮朝列傳 第五十五)

과연 어느곳인가? 하는 點이다.

秦始皇은 天下의 六國을 統一하였다고 中國史筆이 大書特筆하고 있지만 그天下 六國도 겨우 燕(河北), 齊(山東), 韓(河南), 趙(河北), 魏(山西), 楚(湖北)의 「河北-山東」에 걸친 疆域에 不過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中國人들의 宇宙觀 乃至 世界觀 속에 反映된 天下는 渤海灣과 遼東半島를 벗어나지 못한 「黃河以北-北京」 近處가 저들의 「天下」요 「世界」였다.

그러므로 저들의 「世界」속에서 「朝鮮」을 찾는다면 오늘날의 「山東-渤海-河北」을 벗어나서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中國의 史學者 林惠祥도 그의 中國民族史에서 말하기를 「東夷는 歷史上에 広狹의 二義가 있으니 狹義는 오늘날 中國境內에 있는 東夷를 專稱하며 本書(中國民族史)가 말하는 東夷는 이 狹意의 東夷를 專稱한다. 곧 狹意의 東夷는 秦나라때 以前 中國의 東部 即 오늘날의 山東, 江蘇, 安徽의 近海 및 淮江一帶의 東夷이다. 広義의 東夷는 秦漢以後 中國版圖가 擴張됨에 따라 中國內의 東夷는 이미 中國에 同化하고 滿洲, 朝鮮, 日本, 琉球等族을 東夷라고 別稱하게 됐다. 4) 고 했다.

4) 東夷在史上有広狹二義 狹義專指在中國境內者
本書就狹意而言 東夷在秦以前居於中國東部
即今山東江蘇安徽近海及淮之地 - - - - -
東夷之広義 則為秦漢以後版圖擴張在 中國境內東
夷已歸同化 因別稱指滿洲朝鮮日本琉球等族為東夷
(林惠祥 「中國民族史」)

다시말하면 東夷, 朝鮮이라는 말은 秦始皇以前 그리고 漢武帝때까지도 오늘의 中国本土内の 江北, 東半에 있는 民族을 뜻하고 漢以後에는 中国本土外에 東方의 滿洲, 韓半島, 倭等の 民族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中国史家들의 一致된 見解이다. 勿論 漢四郡 當時의 朝鮮도 中国内部的 東夷를 專稱한것이거나 或 中国에의 同化期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中国史家の 見解처럼)

그런데 燕齊之間 즉 天津에서 山東에 걸친 海岸地方은 韓國史의 三國時代까지도 여전히 東夷의 活動圈이었다. 秦은 六國을 併合하고 天下를 三十六郡으로 劃定 했는데 會稽와 長沙二郡만이 揚子江南쪽에 있고 (註, 實際로 実存하지 않은 郡이다) 나머지는 모두 揚子江北에 있었다. 이것이 秦의 最大版圖인바 그 西部만이 實質的 秦의 版圖요, 東部는 東夷의 活動圈이 었다. 이때의 秦의 領土를 말하는 글로는 「史記」의 다음 記錄이 있다.

地東至海^望朝鮮 - - - - - 北挾河為塞竝陰山至遼東

(秦始皇本記 第六)

(땅은 東으로 바다에 이르러 朝鮮에 미치고 - - - - -)

北은 黃河에 挾하여 塞 (國境) 를 이루며 陰山과 나란히 遼東에 이른다.)

秦始皇은 天下富豪를 咸陽 (陝西省) 에 옮기고 咸陽의 北쪽의 언덕 甘泉山에 宮室을 짓고 南쪽으로 渭水를 바라본다하였으니 오늘의 「黃河南쪽 - 渭水의 北」 쪽이 그 서울인 咸陽인바 (地圖 參照) 여기를 中心하여 「東으로, 朝鮮과 黃海에 이른다」고 하면

朝鮮의 位置는 자연히 山東省 南쪽-淮水가 되고 「北으로 黃河를 塞(國境)로 하고 陰山과 나란히 遼東에 이른다」 하였으니 遼東의 位置는 오늘날의 北京地方이다. 또 戰國時代의 蘇秦이 燕나라 文侯에게 合從策을 말하는 가운데 朝鮮을 拳論하였는데 이를 보면 朝鮮의 位置는 더욱 明若觀火하다. 5)

즉 蘇秦은 燕나라 東쪽에 「朝鮮→遼東」이 있고 北쪽에 「林胡→椏煩」이 있고 西쪽에 「雲中→九原」이 있고 南쪽에 「呼池水→易水」가 있다고 했으니 이것이 燕나라의 四方位였다. 그런데 蘇秦은 「朝鮮→遼東」「林胡→椏煩」等 二地名을 連号하면서 가까운 地名을 먼저 말하였다. 그는 燕에서 뿐만아니라 趙에 가서도 이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燕나라 東쪽에 「朝鮮」이 「遼東」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朝鮮은 呼池水以北 燕 東쪽의 海岸地方 즉 지금의 天津以南 墜運河東方의 地方이고 遼東은 그 北方, 北京地區이다. 上述한 地東至海 朝鮮- - - - -北挾河為塞竝陰山至遼東」

(史記)와 꼭 같은 指摘이 된다. 秦은 燕을 征服(BC 222年)하고 齊를 征服(BC 221年)함으로써 六國을 併合하였는데 「燕齊之間」(天津-山東半島의 海岸)에는 여전히 朝鮮國이 健在해 있었다.

(이것은 重要な 史實이다.)

5) 秦將為從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椏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池易水 地方二千餘里 車七百乘 騎六千匹 粟支二年 南有謁石雁門之饒 北有藺粟之利 民雖不田作 藺粟之實 足食於民矣 此所謂天府也
(戰國策)

大河의 河口地方인 이곳 「델타」地方(朝鮮)을 水上戰에 未熟한 秦나라의 地上軍이 넘보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금 強調하거니와 上古史에서 中国古典이 「朝鮮」「遼水」「遼東」「淇水」라고 指摘하는 地名들은 오늘날의 韓半島는 고사하고 오늘날의 遼東半島까지도 미치지 못한 万里長城以西(南)의 땅(물)이 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上古史의 「朝鮮」의 位置가 確定될때 從來의 漢四郡史料는 自然之勢로 一大再檢証, 再考案이 斷行되어야 한다.

(3) 漢四郡의 反証史料

漢四郡의 首都-樂浪郡의 位置疆域을 論한 史料로는 다음 碣石山」의 史料가 가장 正誤를 찌르는 것이며 基本史料라 할 수 있다.

碣石山在漢樂浪郡遂成縣秦築長城東截遼水起於此山(史記 卷二 夏本紀第二 및 通典 辺方門, 東夷列伝 等)

(碣石山은 漢하나 樂浪郡 遂成縣에 있는데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東쪽으로 遼河(오늘날의 溱河-河北省)을 가로질러 이 碣石山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渤海沿岸」 곧 北京의 東쪽인 秦皇島沿岸에 우뚝 솟은 碣石山(地圖參照), 이곳이 漢樂浪郡遂成縣인 것이다. (從來의 說은 平壤을 樂浪이라 했음)

또 樂浪郡의 首縣은 「朝鮮城(縣)」이라고 했고(漢書, 地理志) 從來의 史家들은 이 朝鮮城을 金日成의 窺掘地-오늘의 平壤이라고

盲信해 왔다. 그러나 中国正史 大明-統志는 그朝鮮峯(城)이 오늘날 毛沢東(死亡)의 「서울」 北京近処(永平府境内)에 있다고 銘記하고 있다. 6) 勿論 漢四郡의 이름이 朝鮮四郡国-菽且, 滎陽, 濳濟, 平州가 아니고 從來史說마냥 樂浪 玄兔, 臨屯, 真番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漢四郡의 首都(樂浪) 首峯(朝鮮城)의 位置는 平南平壤-金日成의 平壤이 아니라 故毛沢東의 北京地方에서~天津(碣石山)에 이르는 地方임이 明白해졌다.

그렇다면 다음 여러 史料들이 記錄한 「玄兔」나 「樂浪」이나 「平壤」 或은 「帶方太守」等은 韓半島와는 無關한 中原大陸의 地名(人名)들이라는 事實을 알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高句麗가 南侵하여 韓半島에 있는 樂浪, 帶方을 席捲한 것이 아니라 西侵하여 中原大陸의 渤海之間(渤海-渴石의 사이)에 있는 樂浪, 地方을 蹂躪한 것이 判明된다.

- ① 美川王三年(AD 302年)秋 九月王率三萬侵玄兔郡虜八千人移之平壤(三国史記 高句麗條)
- ② 美川王十四年(AD 313年)春二月 侵樂浪郡虜獲男女二千餘口 樂浪遂滅(三国史記 高句麗條)

6) 朝鮮城在永平府境内 - - - - 後魏置峯屬北平郡
(大明-統志 卷五 永平府)
郡名孤竹為古名 北平為秦名 盧龍為魏名 北燕為平州
及樂浪郡 後魏改樂浪為北平郡
(大明-統志 卷五 永平府)
(註 朝鮮城=永平府=樂浪郡=北平郡=盧龍=孤竹)

③ 太祖九十四年 (AD 146年) 太祖王遣將襲遼東 西安平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三國史記 太祖王九十四年條)

一般的으로 樂浪郡이 高句麗에게 滅亡당한 年代를 前記史料②의 美川王十四年 (AD 313年) 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樂浪이 平壤이라면 그 北方에는 高句麗라는 強大國의 疆域이 가로 막혀 樂浪은 韓半島內에 四顧無援格으로 孤立된 외딴섬 (孤島) 에 不過하다.

그러한 樂浪이 BC 108年에서 AD 313년까지 四百餘年동안 敵國의 後方에서 孤軍死鬪했더란 말인가? 이는 通俗的인 「狀況証拠」로도 言不成說이다. 더우기 위史料①은 그樂浪이 滅亡하기 十一年前에 美川王이 玄菟郡의 捕虜8,000名을 平壤으로 옮겼다 했으니 樂浪이 平壤이라면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東川王二十年 (AD 246年 樂浪滅亡 67年前) 에는 東川王이 「築平壤城」하고 「移民及廟社」 (百姓과 宗廟社稷을 平壤으로 옮기다) 했으니 이러한 怪事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위史料③에서는 太祖王의 將兵들이 遼東, 西安平을 襲攻하여 黃海道에 있어야할 帶方令을 遼東에서 죽이고 平壤에 있어야할 樂浪太守의 妻子를 遼東-西安平에서 사로 잡았으니 어찌된 일인가?

帶方令, 樂浪太守의 妻子들이 韓半島를 떠나 遼東方面으로 「바캉스」 行車라도 했더란 말인가?

要約컨대 위史料①②③은 모두 平壤이나 黃海道, 江原道等地를 高句麗가 南侵한 記錄이 아니라 오늘날의 「遼西-北京-天津」地方

을 西侵한 記錄들인 것이다.

却說, 高句麗를 侵攻하는 隋陽帝의 軍士들이 左十二軍은 「椽方」 「長岑」, 「海濱」, 「蓋馬」, 「遼東」, 「玄菟」, 「扶餘」, 「朝鮮」 「沃沮」, 「樂浪」 등의 道에서 出發하고 右十二軍은 「粘蟬」 「含資」, 「渾彌」, 「臨屯」, 「提奚」, 「肅慎」, 「碣石」, 「東旆」, 「帶方」 등의 道에서 出發했다. 그런데 이 모든 地名들은 漢四郡의 郡名, 縣名들이다. 7)

高句麗의 서울-平壤을 치러가는 隋煬帝의 軍隊가 平壤 (樂浪) 에서 떠나고 朝鮮 (城) - 平壤에서 떠나다니 어찌된 일인가?

或時 隋煬帝가 變節하여 朝鮮 (平壤) 에서 出發하여 隋나라 本國을 征伐하려갔단 말인가? 이 모든 史學的 不條理가 距今 1,000 年の 歲月속에 通用되어온 現代的 魔術이오 神秘다.

< 漢四郡 = 朝鮮四郡國의 結言 >

漢四郡의 陰謀와 그 真相은 近代日本の 植民史學이 韓國史에 加한 苛虐行爲의 標本이오, 그 匠卷이다. 이같은 苛虐行爲의 基本哲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7) 左十二軍出椽方, 長岑, 玄菟, 扶餘, 沃沮, 樂浪, 等道
右十二軍出粘蟬, 臨屯, 提奚, 肅慎, 碣石, 東旆, 帶方, 渾彌
襄平等道 (隋書 卷四 帝紀第四 煬帝下)
(貞觀政要 卷九 三國史記 嬰陽王)

“韓國史는 韓半島가 基本疆域 (= 半島史觀) 이며 항차 그半島나마 半島의 殆半 (北半) 을 中國에 빼앗겨 植民地 歷史로 始作된 歷史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人은 오늘 日本植民地百姓이 된 事實을 宿命的으로 當然하게 알 뿐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한다”

結局 韓國의 敗北主義 挫折 諦念 劣等意識을 부채질하고 國史에 對한 嫌惡感을 助長하는것! 그리하여 韓國人의 긍지와 自負를 꺾고 우리로 하여금 永遠토록 日本植民地百姓으로 自足하며 살 수 있는 「適性」을 培養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三十年동안 日本植民史學이 心血을 傾注하여 만들어낸 “朝鮮史 (三十五卷)”였다. 슬프게도 우리는 光復三十一年이 되는 이 時空에서 아직도 日本植民史學의 「植民哲學-朝鮮史」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合理化하려는 意識構造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것은 一部 史學界의 現實이다)

이같은 祖國史의 真相~現實을 外面하고 口로만 「主體的 民族史觀」을 高揚하는 오늘의 姿勢는 얼마나 「灰칠한 무덤」같은 偽善인가? 우리 모두 곰곰히 反省해볼 일이다.

지난 數年동안 韓國正統史學派들은 (筆者包含) 뜻을 뭉아 全力으로 「民族史觀運動」 (啓蒙) 을 展開해 왔다. 그러나 最近 우리는 지금까지의 啓蒙運動을 試行錯誤로 結論짓고 自省한다.

「畫龍点睛」이라는 말도 있지만 “龍을 그리는 者가 그 눈 (眼) 을 그리는 것을 잊은것”처럼 우리들은 實로 重要的 正鵠을 逸失한

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

“史觀運動이나 史觀論争에 앞서 「史学」 自体의 論争을 先行했어야 했다.”는 自責 後悔 反省이 그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史觀은 史学の 土台위에서 틀이 짜여지고 영그는 「열매」인 것이다.』 唯物史觀의 土台위에서 民族史觀이 짜여지거나 영글수 없고 實証史学の (民族史학을 外面한) 土台위에서 主体的 民族史觀이 鼎立될 수 없다. 尙차 日本植民史学-朝鮮史의 肯定基盤위에서 史觀의 光復이 定向될 수 없다. 그렇거늘 오늘의 諸般 国史運動이 史学到 尙한 올바른 論争을 거치지 않고 바로 史觀運動으로 直行하고 있으니 論争의 惡循環이 있을뿐이다.

史学은 民族史学이 있을 뿐이다. 오늘 實証史学이나 社会科学 그리고 考古学等은 「民族史학을 研究하는 方法 傾向 및 補助 學問」일 뿐이다.

이같은 史学原則과 理解가 確立, 定義되어야 한다.

이러한 趣旨에서 오늘 韓國史学界의 懸案問題로 浮刻된 北傀史学-唯物史觀과 朝鮮史의 肯定土台위에서 있는 「아카데미史学-實証史学」그리고 国史觀光 正史復元의 原則을 固守하는 「民族史学」間의 大会戰을 史觀論争에 先行하여 決行할 것을 提議한다.

民族史学은 祖国의 平和的 国土統一을 期約하는 思想的 国論 (總和)의 基本姿勢를 鼎立하는 体制哲學의 「核」이 되기 때문이다.

却說, 漢四郡은 漢武帝의 「勝戰譜와 朝鮮의 敗北」로 짝지워질

史件이 아니라 「朝鮮族의 勝利와 燕人, 衛滿政權의 沒落 그리고 漢武帝의 敗北와 그의 “ 콤플렉스 ”] 로連結되는 韓國史의 榮光이오 勝利의 記錄이다.

따라서 痼疾的인 韓國의 敗北主義를 治癒하는 「트리트먼트」(処方劑)의 하나로서 「漢四郡 곧 朝鮮四郡國의 真相」을 여기 紹介했다. (註, 本論에서 衛滿의 國籍이 「燕人」이냐? 「朝鮮人」이냐? 에 對해서는 論外로 하였다.)

(나) 「黃河文明의 主人公은 「東夷朝鮮」이다」


世界四大文明의 하나인 「黃河文明」은 從來 의례 殷 (BC 1766-1122 BC) 民族이 開拓한 文明이라고 「定義」되어 왔었다. 그러나 最近 中國의 學者들은 그 殷民族을 東夷族이라 못박고 심지어는 「殷人=東夷=朝鮮人」이므로 「殷人=朝鮮」이라고 三段論法을 서슴치 않고 展開한다. 中國學者 林惠祥은 말한다.

孟子는 舜임금을 東夷人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研究에 依하면 舜임금은 (東夷人일 뿐 아니라) 「殷人의 祖上임을 알게 되었다.」 「殷은 東夷이다」 東方에서 일어났다. 殷이 亡한 後에 箕子 (殷人)가 東쪽으로 朝鮮에 亡命했다. 「朝鮮 亦是 殷民族이 살던 곳이기 때문이다」 * 라고 12)

12) 孟子言舜東夷之人也今人推得舜為殷人之祖殷人為東夷興於東方而殷亡後箕子東走朝鮮朝鮮亦為殷氏族所居云如姜亮夫之夏殷民族考即云東夷淮夷等或者遷是殷之先民 …… 殷

殷人이 朝鮮人이라면 黃河文明은 두말할것도 없이 「朝鮮族의 것」이다. 現代의 中國學者들은 殷나라가 東夷族의 나라임을 考證하기 위하여 殷에 關한 「文學的記錄」 「地理的條件」 「種族의 由來」 「傳說・神話의 比較」 「夷」字와 「殷」字의 「文字풀이」等 各方面의 考證을 動員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1) 「殷」字와 「夷」字는 같은字다. 說文에 「夷」字는 「大와 弓」에서 된 文字 (大弓 - 夷) 인데 「殷」字는 「弓」을 쏘는 「射」字에서 갈라져 나온말이다. (註甲骨文字의 「殷」字는 「」로서 마치 사람이 활 - 「弓」을 쏘는 形象과 닮았다) ~ 「夷와 殷의 文字풀이」

(2) 中國의 經典인 “書經”에는 「天命玄鳥降而生商」이라는 말이 있는데 「玄鳥」 (검은 새 「玄夷」를 象徵한듯) 가 하늘 (天) 의 命을 받고 地上에 내려와 「商」 (殷나라의 古號) 9 낳았다는 開國

是古代東方民族的族名本字当作夷其所举之証摠為說文訓夷為東方之人太誓有“受有億兆夷人離心離德”之語墨子之非命上引太誓“紂夷处不肯事上帝”殷亡後東方助武庚叛周夷字為射字之分化字而殷人射納之事甚盛云至於殷与朝鮮史關係其証摠姜氏所举為箕子王於朝鮮朝鮮人之傳說“頗与天命玄鳥降而生商的話相近”“而當時的遼東朝鮮半島或遷未成深洋”云按殷為東夷之說証摠頗多太誓之“受有億兆夷人”一語甚為明顯至於殷人与朝鮮史關係則証摠尙未充分依此說則夷与(紂)為同。林惠祥。 . 그 책第四章. 東夷系即漢族来源之二 附錄 紂

始祖의 卵生神話가 朝鮮의 神話 (赫居世·金閼智 朱蒙 - - - 等) 와 같다. (卵生神話)

(3) 卵生神話의 徐偃王이¹³⁾ 三十六國의 朝貢을 받았던 「淮江」 (楊子江과 黃河中間에 있는大河) 一帶에 살던 「淮夷」도 殷民族의 先祖다. (種族由來)

(4) 上古時代에는 渤海灣이 얇은 바다였거나 陸地였기 때문에 殷民族과 朝鮮族은 往來·交通의 便宜가 있었다. (地理條件)

(5) 「殷人이 朝鮮人이다」하는 文獻上의 많은 記錄이 있다.

「太誓」(書經)에는 「殷나라에 億兆의 夷人」이 있다. (受有億兆 夷人 離心離德)는 말이 있고 「紂夷死不事上帝」라는 말도 있다. 殷이 亡한後 朝鮮이 紂의 아들인 武庚을 도와 周에 反抗하였고 무엇보다도 殷人箕子가 朝鮮으로 亡命하여 王노릇했다는 等의 記錄이 「朝鮮=殷」의 證據다. (文獻的 考證) 이밖에도 「殷人은 東

13) BC 1000 년경 中國楊子江~淮江사이 곧 오늘날의 江蘇省 一帶의 넓은 平野에 50 餘國의 朝貢을 받는 大國을 세운 우리나라사람. 그는 淮壘地方에 進出하여 徐國을 세우고 當代의 強國 周 (BC1122 ~ 249 BC) 를 자주 侵犯하매 周는 항상 莫大한 貽害를 바치며 和親을 빌었고 특히 周의 穆王은 東쪽 넓은 땅을 갈라주고 享福했으며 그 외에도 海內外에서 朝貢하러오는 나라가 36 國 或은 50 國이나 되었다고함. (文獻. 博物志)

夷人이다」 「殷為東夷」하는 古典的 表現을 避하여 「古朝鮮」¹⁴⁾ (王
儉朝鮮)의 疆域은 殷民族이 살든 땅이다 하는 「殷=古朝鮮」을
直說的으로 記錄한 글이 있다.

古朝鮮之地何在? 姜亮夫以為朝鮮本殷民族的分佈地—— (姜亮夫·夏殷
民族考 林惠祥·中國民族史)

또 卵生神話의 殷나라 祖上 (契·설)에 關해서는 中國正史 史記에
다음글이 있다. 簡狄帝高辛之次妃 三人行浴 玄鳥隕卵 簡狄吞之. 因以
生契 (史記·五帝本紀)

(簡狄은 帝高辛의 次妃인데 세사람이 沐浴을 하러가다가 玄鳥가
알을 떠러뜨리는 것을 보고 簡狄이 이알 (卵)을 먹고 契 (설)을
낳았다. (契 (설)은 殷國의 始祖다)

위에 引用한 書經의 「天命玄鳥降而生商」이라는 記錄의 發展形態
이다. 「殷民族은 朝鮮族이다」라는 考證을 古今의 中國文獻과 學者
들이 拳論하였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를 더 紹介한다.
그것은 곧 “ 흰빛갈 (白色) ”이다.

「殷나라 湯인금이 歲首 (설)를 고치고 옷 빛깔을 바꿔서 白色
으로 하였는데 殷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白色을 崇高했다」¹⁵⁾고

14) 三國遺事에는 「古朝鮮」으로 時代区分되어 있으므로 「檀君朝
鮮」으로 부르는것 보다 「古朝鮮」으로 呼稱함이 좋다.
또 三國遺事는 「古朝鮮 (王儉朝鮮)」이라 했으니 「王儉朝鮮」
或은 「古朝鮮」이라 함이 좋다.

15) 湯乃改正朔易服色 尚白朝会以鬻湯崩契為子姓其後分封以國為姓有殷氏
來氏宋氏稚氏北殷氏目夷氏孔子曰殷路車為善而色尚白索隱論語孔子曰
乘殷之路禮記曰殷人尚白：史記卷三殷本記第三.

中国正史·「史記」(卷三·殷本紀第三)는 말하고 있다. 곧이 우리 민족이 白衣民族이라는 것을 들먹일 것도 없이 中国古典이 伝하는 「白民之國」「亳(畔)肅慎」「亳朝鮮」「渤海」-----等 「畔」고 「회」다는 것은 朝鮮族의 屬性같은 것이다.

이토록 黃河文明을 開拓한 殷民族이 中国民族이 아니라 東夷=朝鮮族이라는 史實을 中国古典과 現役中国史家들은 立証한다. 따라서 黃河文明이 東夷의 것이오. 韓國民族은 中国民族보다 한발 앞서 文化生活과 歷史活動을 始作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確証을 示唆하는 것이다.

殷民族과 「한백산」(太白山)을 中心으로한 朝鮮民族(畔民族)과의 關係를 象徴적으로 表顯한 中国正史의 記錄은 이른바 “殷墟三毫”(畔)이다. 殷民族이 그始祖契(실)로 부터 湯임금에 이르기 까지 前後 八次에 걸쳐 首都를 옮겼는데 그八個의 首都 가운데 “畔(毫)”이라는 이름이 三個나 된다.

是為成湯自契至湯八遷湯始居毫-----伊尹去湯適夏. 既醜有夏. 復歸于毫
-----帝盤庚之時. 殷已都河北 盤庚渡河南-----乃遂涉河南治毫
集解 鄭云日 治於毫之都也 商家自毫 而改号曰殷毫(史記 卷三. 殷本
紀)上古文明의 象徴이라하면 文字와 달력(曆書)이다. 그런데
殷民族은 東洋最初의 表意文字(漢文의 原型·始祖). 곧 「甲骨文字」를¹⁶⁾

16) 殷(BC1766 ~ 1122) 나라의 문자. 거북의등이나 짐승의 뼈에 새겼다 해서 이런이름이 붙음, 殷墟書契, 龜甲文字, 占卜文字卜辭라고도함. 甲骨文字로 占을 쳤다고해서 占.卜의 文字라고 하는 것이다.

發展시켜 常用했고 東洋哲學의 核心인 「六十甲子法」을 創案하여 「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의 「十進法」과 「地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의 「十二進法」을 開發했다.

오늘날 燕京大學 (中國) 에는 甲骨文으로된 「六十甲子表」 (甲骨片) 가 保管되어 있다.

燕京大學所藏甲子表

+	癸	~	又	口	癸	口	𠄎	戌	辰	己	𠄎	辛	丨	辛	工	𠄎	癸	𠄎	
+	戌	~	𠄎	口	癸	口	又	戌	癸	己	𠄎	辛	辰	辛	𠄎	工	丨	癸	癸
+	乙	~	𠄎	口	戌	口	𠄎	戌	癸	己	又	辛	癸	辛	𠄎	工	辰	癸	𠄎
+	丨	~	癸	口	乙	口	音	戌	戌	己	𠄎	辛	癸	辛	又	工	癸	癸	𠄎
+	辰	~	𠄎	口	丨	口	癸	戌	乙	己	音	辛	戌	辛	𠄎	工	癸	癸	又
+	癸	~	𠄎	口	辰	口	𠄎	戌	丨	己	癸	辛	乙	音	工	戌	癸	癸	𠄎

(朱芳圃「甲骨學商史編」에서)

殷民族은 다른아닌 古朝鮮族인 以上 오늘날 쓰이는 「漢文」은 朝鮮族이 創制한 것이다. 위의 「甲子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干」의 「甲 (+), 乙 (?), 丙 (𠄎), 丁 (口), 戊 (戌), 己 (己) 庚 (𠄎), 辛 (辛), 壬 (工), 癸 (癸)」는 大體로 現行漢字의 型態과 비슷하고 「地支」의 「子 (癸 쥐), 丑 (子 소), 寅 (癸 호랑이), 卯 (𠄎 토끼), 辰 (辰 용), 巳 (巳 뱀), 午 (丨 말), 未 (癸 양), 申 (𠄎 원숭이), 酉 (音 닭), 戌 (戌 개), 亥 (𠄎 돼지)」는 대

개 「十二支神像」의 動物像을 닮았다. 이렇게 古朝鮮族은 漢字의 原型이며 祖上인 甲骨文字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十二支神像」을 닮은 「地支」의 甲骨文字가 立証하듯 東洋哲學의 核心이 되는 周易 五行 易學理論에 이르기까지 「東洋哲學」을 創造해 냈다.

甲骨文字를 常用하던 殷民族의 言語生活까지도 오늘날 韓國의 言語 生活과 類似한 點이 많이 있다. 다시 甲骨學商史編 (朱芳圃編著一九三五年中華書局·上海) 을 紹介한다.

郭沫若是 말하기를 「祖」와 「妣」는 「牡(숫컷)」와 牝(암컷)의 初字이다. 甲骨文字(卜辭)는 「牡(숫컷)」와 「牝(암컷)」字의 定形이 없다 「牛 羊 犬 豕 馬 鹿」等은 大概 形像을 좇아 썼는데 「牡」(숫)과 牝(암)의 表示에서는 「牛」字를 쓰지 않았다.

이제 그表를 다음에 실는다.

郭沫若曰祖妣者牡牝之初字也卜辭牡牝字無定形牛羊犬豕馬鹿均相類賦形而不
 尽从牛作其字之存者今表列之如次

	馬	牛	羊	犬	豕	鹿
牝(암컷)						
牡(숫컷)						

위 表를 仔細히 보면 象徴적인 「丩」(숫컷)와 「ㄱ」(암컷)의 表示가 많다. 이것들은 「祖」字(丩)와 「妣」字(ㄱ)의 省略型인데 「古文」에서는 「祖」의 「示」字와 「妣」의 「女」字를 쓰지 않았다. 甲骨文字(卜辭)에도 「妣」「祖」字의 여러形態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統觀上表所列均从「屮」象徵之字，所謂「屮」即祖妣之省也古文祖不从示，妣不从女，其在卜辭，祖妣字有下列諸形)

祖					
妣					

즉 「屮」字는 男子姓器의 形象인데 이를 簡單히 적으면 「屮」다. 「妣」는 「匕」(숫가락·사)字인데 「“숫가락” 柶(사)」字의 古字 「匕」字를 늘킨(伸) 것이 「𠃉」이며 「암컷」의 姓器가 「𠃉」와 비슷하므로 「𠃉」를 「妣」(죽은어머니비) 또는 牝(암컷 빈)으로 적는다.

(是則且実牝器之象形，故可省為「屮」：匕乃匕柶字之引伸，蓋以牝器似匕，故以匕為妣若牝也)

다시 말하면 모든 「動物」(사람 포함)은 姓器가 雌雄을 決定하는 絶對基準이다.

그런데 甲骨文字에 있어서도 “馬·牛·羊·犬·豕·鹿”의 雌雄(암수) 決定을 姓器의 모양으로 表示했다. (例 𠃉 (숫소) 𠃉 (암소))

그런데 男性 姓器의 表示는 「祖→屮→屮→屮→屮→屮」로 되었고 女性의 것은 妣→比→匕→→匕→𠃉→𠃉)로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發音이다. 옛날 殷人들은 男性의 “姓器”를 「조」로 發音하고 女性의 姓器를 「비」로 發音했다는 事實이다.

오늘날 韓國語의 發音과 恰似할 뿐 아니라 反對로 오늘날 中國語의 發音과는 判異하다는 事實이다.

이밖에도 出土된 甲骨文字의 解釋을 通하여 殷文의 文法的 構文形式이 “알타이系”와 類似하고 심지어 發音까지도 같다는 여러가지 事例가 있다. 中國學者 繆鳳林이 쓴 中國通史綱要에 依하면 世界四大文明地의 하나인 尤프라레스江邊에 進出하여 世界最古의 文明을 開拓한 「슈메르」(Sumer)民族도 “알타이”系의 語文을 使用했으며¹⁷⁾ 中國古文(甲骨文字=殷文)과 意義가 相似한 것이 “1,000餘個”나 된다고 英國牛津(Oxford)大學教授 鮑爾(Dr. J. Ball)博士의 글을 引用했다.

• 牛津大學 鮑爾博士 則謂思米爾(Sumer)之象形字 與中國古代象形字 極相似 鮑氏曾將漢字與思米爾字之音義相近者 集得千餘 刊一專書 而論述之 明此二民族必出於一源云”(中國通史綱要 三十六面)

Oxford大學의 Dr. J. Ball博士는 그의 著書 “中國人과 슈메르人”(Chinese and Sumerian, 1913)을 通하여 슈메르文字와 中國古文(甲骨文字)의 相似點을 論述로 하여 中國人과 슈메르人은 同一源에서 發祥하였고 中國人은 「메소포타미아」에서 發源하여 東來한 民族이라고 主張한 것이다.

17) Sumerians은 表音文字와 表意文字를 同時에 混用하여 그 뜻이 多歲하고 理解하기 어렵다. 이들은 世界最古의 人種으로 알라이語文族이다.

Dr. J. Ball 博士의 “Chinese and Sumerian” 이 引用한 Sumer 文字와 中国文字의 相似点의 实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天)	(王)	(非)	(立)	(米)	(山)	(日)
思米爾文	↑	丰	· 日	白	米	山	日
中国古文	天	王	井	立	米	山	日

	天	王	井	米	山	日	立
Sumer	↑	丰	日	米	山	日	白
Chinese	天	王	井	米	山	日	立

아무튼 슈메르文字와 甲骨文字가 相似한것이 千餘個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事實이요 “슈메르民族”이 알타이系統의 말을 썼다는 것은 더욱 鼓舞的인 事實이다.

「Britanican Encyclopedia」에 依하면 “슈메르”인의 使用語를 “알타이系”라고 (그 可能性을) 示唆하고 現在의 이락 (Iraq) 平原의 東쪽 山嶽地帶를 넘어서 온 東方族이라고 한다.

Sumerians, first civilized inhabitants of ancient Babylonia (modern Iraq). Perhaps as early as 5,000 B.C. the Sumerians came from the east or descended from the mountains of Elam to the swampy plain (ancient Sumer) 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Britanican Encyclopedia. Sumerians)

前記한 Dr.J.Ball 은 中國民族의 西來說을 主張하고 있지만 Sumerians 들이 “알타이”語를 使用하며 東쪽에서 西쪽으로 進出한 年代가 距今 約七千年前 (as early as 5,000 B.C.) 이라면 Dr.J.Ball의 假說은 成立되지 않는다. 도리어 Sumer 人들이 東方에서 그言語와 文字를 갖고 西方으로 進出했다는 다른 하나의 假說이 成立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黃河文明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文明”보다 늦게 成立된 文明이다. 그렇기 때문에 Dr.J.Ball의 西來說은 合理性을 갖는 假說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또 Dr.J.Ball 은 黃河文明의 主人公을 「東夷=朝鮮人」이라는 事實을 모르고 「漢族」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主張은 客觀性을 지닌듯 했다. 그러나 漢族보다 中原大陸에 進出한 先住民은 알타이 東夷系住民이라는 事實을 中國古典은 勿論이오 現存中國史家들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當四千餘年前 漢族未入中國以前 中原之 北部 及南部 已經有苗族 (東夷) 占領 漢族移入中國後 漸興接觸 (解枳文) ¹⁸⁾
(徐亮之著 中國史前史話)

18) 「約四千餘年前 漢族이 아직 中國에 들어오기 前에 中原大陸의 北部와 南部는 이미 苗族 (=東夷)이 占領하고 있었으며 漢族이 中國에 들어온後 漸次로 接觸하게 되었다.」

当漢族未入中国以前 現在湖此・湖南・江西等地 本為苗族所屬 此族之國名 為九黎 君主蚩尤 (王桐齡著 中国史)¹⁹⁾

殷나라만이 아니라 中国의 三代(夏・殷・周)以前은 東夷族의 獨舞台요 漢族은 中原大陸에 出現하지도 않은 時代였다.

殷나라의 前朝 夏나라의 禹王(始祖)도 自己 自身을 “嘉夷”(훌륭한 東夷)라고 自讚한 吳越春秋의 글이 있다.

禹三十未娶 行到塗山 恐時之暮失其度制乃辭云 吾娶也必有 應矣 乃有白狐九尾，造於禹，禹曰白者吾之服也 其九尾者王之証也 塗山之歌曰 “²⁰⁾ 綏又白狐，九尾²⁰⁾ 虺又”我家嘉夷 來賓 為王 成家成室 我造彼昌 天人之際 於茲則行明矣哉 禹因 娶塗山 謂之女嬌 取辛壬癸甲 禹行 十月女嬌生子啓 (吳越 春秋 卷四 越王無餘外傳 第六)

(禹임금의 나이 三十이 되도록 장가들지 않았는데 塗山에 이르렀을 때 婚期를 놓쳐 制度에 벗어날가 念慮하였더니 그래도 사양해서 말하기를 “내가 장가를 가려면 반드시 應報가 있으리라” 했다.

19) 漢族이 아직 中国에 들어오기 前에 現在의 湖北・湖南・江西等 地는 本来 苗族의 附屬이었다. 이 民族의 國名은 九黎요 君主는 蚩尤(치우)다.

20) 檀君之子・夫婁太子가 夏나라 禹王에게 「治山治水」의 秘法을 伝達했다는 場所가 이 「塗山」이다. (檀君世紀, 等)

때마침 “白狐九尾”²¹⁾ 가 나타나 應報를 禹임금에게 만들어 주었다. “禹임금 가로되 “白 (흰色) 은 나의 衣服 (白衣民族) 빛같이오 九尾는 (至極한 數로써) 王이 될 証佐이다. “塗山の 노래”에도 “綏綏白狐, 九尾疵疵”이란 말이 있다. 나의 집안 (家門) 은 훌륭한 (東) 夷로써 손님으로 와서 王노릇하며 집을 이루고 (王) 室을 이뤘으며 나는 저 (彼~中國땅) 를 昌成케 하였으니 天人の 契際가 이와 같으니 내가 장가 들이 마땅하겠노라!” 고. 따라서 禹임금은 塗山에서 장가드니 新婦의 이름은 女嬌라 辛日, 壬日 癸日 甲日 (四日동안) 을 新婦와 더불어 (密月을) 보내고 禹임금은 떠나갔다. 그後 十個月이 되매 女嬌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啓」이다.

中國의 三代 곧 「夏殷周」에서 殷만이 아니라 殷의 先代인 夏의 始祖도 中國 (漢族) 人이 아니라 東夷-朝鮮人임을 나타내는 象徴적인 表現이다. 安浩相博士의 “배달 등이 겨레의 한 옛 역사”와 近刊된 「東亞文化的 創造者」는 中國의 三皇五帝 (太皞伏羲 BC 3528 ~ 3413, 炎帝神農 BC 3228 ~ 3078, 黃帝軒轅 BC 2692 ~ 2592, 小昊金泉 BC 2598 ~ 2514, 蒙頊高陽 BC 2531 ~ 2436, 帝嚳高辛 BC 2435 ~ 2365, 帝堯陶唐 BC 2357 ~ 2260, 帝舜有

21) 有青丘之國有白狐九尾`太平則出而為瑞也
 (青丘國-朝鮮-에 九尾狐가 있는데 天下가 太平할때면 나타나는 瑞獸다.) (山海經·大荒東經)

虞 BC2255 ~ 2208) 는 勿論이고 夏·殷·周의 三代 및 殷人孔子 (BC551 ~ 479) 秦始皇 (BC246 ~ 209) 까지 모두 東夷人이라고 說破했다.

實際로 史記·五帝本紀는 「黃帝부터 舜임금 (三皇五帝) 까지 「皆 同姓 而異其國號」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三皇五帝는 그 國號 만 다를 뿐 姓이 같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뫼줄 한血統이다.

自黃帝至舜禹 皆同姓 而異其國號 以章明德 故黃帝為有熊 帝顓頊 為高陽 帝堯為高辛 帝堯為陶唐

(史記·卷一 五帝本紀第一, 虞舜者)

그런데 舜임금이 東夷사람이라는 것은 中國經典 「孟子」가 直筆 한바요 오늘의 中國史學者 林惠祥은 그 舜임금을 殷人의 祖上이라고 못박고 있다 (前述). 또 「中國疆域沿革史」를 쓴 史念海· 顧頡剛, 兩氏는 말하기를 秦始皇의 「秦」나라 곧 China, Chinese 의 語源 도 「東夷-殷」과 같이 「卵生神話」를 갖는 同一來源의 같은 民族 (東夷族) 이라고 主張한다. 22)

22) 女媧織玄鳥隕卵女媧吞之生子大業 - - - - 雖記秦事與叙淮夷之祖因 秦本 嬴姓 嬴姓乃東方濱海之民族也 淮夷本東海上部族詩魯頌 云「至於海邦淮夷來同是其証據此種種佐証則知所謂「天命玄 鳥降而生商」與與東北民族各神話同一來源持此以証商民族與 東北有密切關係蓋為無疑也

(顧頡剛史念海共著中國疆域沿革史)

虞 BC2255 ~ 2208) 는 勿論이고 夏·殷·周의 三代 및 殷人孔子 (BC551 ~ 479) 秦始皇 (BC246 ~ 209) 까지 모두 東夷人이라고 說破했다.

實際로 史記·五帝本紀는 “黃帝부터 舜임금 (三皇五帝) 까지 「皆同姓 而異其國號」라 하였다. ” 다시 말하면 三皇五帝는 그 國號만 다를 뿐 姓이 같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핏줄 한血統이다.

自黃帝至舜禹 皆同姓 而異其國號 以章明德 故黃帝為有態 帝顓頊 為高陽 帝~~堯~~為高辛 帝堯為陶唐

(史記·卷一 五帝本紀第一, 虞舜者)

그런데 舜임금이 東夷사람이라는 것은 中國經典 「孟子」가 直筆한바요. 오늘의 中國史學者 林惠祥은 그 舜임금을 殷人의 祖上이라고 못박고 있다 (前述). 또 「中國疆域沿革史」를 쓴 史念海·顧頡剛~~兩氏~~는 말하기를 秦始皇의 「秦」나라 곧 China, Chinese 의 語源 도 「東夷-殷」과 같이 「卵生神話」를 갖는 同一來源의 같은 民族 (東夷族) 이라고 主張한다. (22)

22) 女修織玄鳥隕卵女修吞之生子大業 - - - - 雖記秦事實叙淮夷之祖因秦本~~嬴~~姓~~嬴~~姓乃東方濱海之民族也 淮夷本東海上部族詩魯頌云「至於海邦淮夷來同是其証摠此種種佐証則知所謂「天命玄鳥降而生商」實與東北民族各神話同一來源持此以証商民族與東北有密切關係蓋為無疑也

(顧頡剛史念海共著中國疆域沿革史)

山海經에는 中國民族의 始祖라고 떠 받드는 黃帝가 東夷國 (白民國)에서 ~帝舜 (=帝俊) 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 났다는 글이 있다.

大荒之中有山名曰明星 日月所出 有白民之國 帝俊 (俊亦 舜字假借音也) 生帝鴻 (帝鴻黃帝也 - - - -) 帝鴻生白氏 (山海經·大荒東經) (크고 거친 땅~滿洲指稱~에 산이 있으니 이름을 "明星"이라 한다. 해와 달이 이에서 뜬다. 여기 白民의 나라가 있는데 帝舜 (俊) 은 帝鴻 (黃帝) 에게서 낳고 帝鴻 (黃帝) 은 白民國에서 낳다)

太皞⁴伏羲 (BC 3528 ~ 3413) 는 그의 母親 華胥가 「雷沢」이란 곳에서 大人의 발자욱을 밟고 姪娠하여 誕生하였고 그 「雷沢」은 훗날 東夷人 舜帝가 낚시질 하던 곳이며 五行思想에 쫓아 「東方」과 「春」과 「木」을 象徵管掌한다 했고 東方의 "밝음"을 쫓아 太皞⁴(한밤-큰밤) 라 이름하였으니 周易에도 帝가 震方 (東北方) 에서 나온다 한것은 太皞⁴를 指稱함이다라고 史記는 밝히고 있다.

“太皞⁴伏羲氏 - - - 母曰華胥 履大人迹於雷沢 而生庖犧 - - - 按…雷沢沢名 既舜所漁之地 - - - 木德王 注春令 故易稱 帝出乎震 月令孟春 其帝大皞⁴是也 註在位東方 象日之明 故稱太皞⁴ 皞⁴明也 (史記 卷百三十未 補史記, 三皇本紀等)

却說 三皇五帝가 모두 東夷系인을 더욱 敷衍할 必要는 없다.

다시 論旨를 슈메 (sumer) 로 바꿔보면 “슈메”은 距今七千年 (BC5,000) 알타이系의 種族들이 象形文字 (sumer 文字) 와 함께 西方으로 進出했다.

그런데 中国正史類가 伝하는 東夷系의 最高祖上이 前記한 BC3,500年 頃の 太皞^白伏羲氏가 그 上限線이다. 그러므로 “슈메族”의 歷史上 限 BC 5,000年을 1,000餘年이나 下廻하는것이다.

그런데 中国正史外에 太皞^白伏羲의 年代 (BC 3500) 를 훨씬 上廻하는 伝說的임금들에 対한 많은 記錄을 볼 수 있다.

그中에서도 歷代神仙通鑑・綱鑑金丹・抱朴子等 仙学系統의 中国古書들이 이를 적고 있다.

東方有東戶氏作 其治出之 - - - 其伝始遠十七世 而皇皞^皇氏作 治二百五十歲 遂逸入太白山 - - - 東海有聖者作 乃教民構木為巢 因号為有巢氏 治三百餘歲而隱 伝七世有燧人氏出於天水 (歷代神仙通鑑 卷一)

곧 皇皞^皇氏는 二百五十年동안 統治하다가 「太白山」에 들어가 숨고 (神仙이 됨 - 死亡) 燧人氏는 天水 (白頭山天地 或은 바이칼湖) 에서 태어났다 했으니 저들이 모두 東夷系임을 暗示하는것이오 太皞^白 (BC 3500) 以前에도 東夷系의 임금들이 있었다는것을 直說하는 것이다.

더우기 韓國側文獻으로 太白逸史가 伝하는 글은 슈메 (sumer) 과의 關係를 暗示하는 많은 示唆를 준다.

波奈留山之下 有栢因氏之国 天海以東之地 亦称波奈留国也 其地広 南北五萬里 東西二萬里 摠言栢国 分言則 卑離国 一郡国. 養雲国 寢莫汗国 勾茶川国 虞魯国 (一云 畢那国) 客賢汗国 勾牟額国 壳勾餘国 斯納阿国 鮮卑国 (一云

丞章 又云 通古斯国) 須密爾国 合十二国 是也

天海今日北海 - - - - - (三聖記 및 太白逸史)

勿論 여기 引用한 「太白逸史는 公認된 正規史料 (例·三国史記·高麗史 - - -) 는 아니다.

그러나 繆鳳林의 中国通史綱要가 蘇夫人 (sumerian) 을 拳論했고

(前述) 여기 太白逸史가 桓国十二聯邦中の 하나로 須密爾国 (sumer)

이 拳論됐다. 東洋史学界에 슈메르인과 슈메르文字가 注目된 歷史

가 日淺한 이때 太白逸史의 “須密爾国”이 者 sumer (슈메르) 를

模倣하여 人爲的으로 偽作된 典拠라 하기엔 無理가 많다.

아무튼 이와같은 非正規史料를 学界에 紹介하는 意圖는 西方으로 進

出한 BC 5,000 年頃의 sumerian들이 東方의 나라 “桓国”에서

發源했을 것이라는 可能性을 示唆하는 하나의 「假說」을 設定. 提

示하기 위해서이다.

韓國史를 BC 2,333 年 檀君紀元以來의 4309 年の 歷史時限으로만

보려는 史眼의 校正을 위해서도 이러한 試圖는 必要한 것이다.

實際로 三国遺事·古朝鮮 (王儉朝鮮) 条²³⁾의 「古記」는 “昔有桓国”

「古朝鮮」 (王儉朝鮮)

(三国遺事)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開国号朝鮮与高同時

古記云昔有桓国庶子桓雄数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

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簡遣往理之雄率徒三千降於太

白山頂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而主

을 明記하지 않았는가? 또 지난날 倭人들은 이 “古記云 “昔有桓国”이 눈에 거슬러 “古記云 昔有桓因”으로 改作했던 것이다.

三国遺事는 “아마츄어”의 史眼으로 보아도 「桓国 (聯邦) - - - 桓因의 나라」 「神市開天 (桓雄의 나라), 그리고 朝鮮開国 (檀君의 나라) 으로 段階的인 記錄이 明白하다.

그런데 오늘 開天節 (國慶節) 을 지키면서 檀君을 기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檀君을 기리려면 開國節이 되어야 하고 開天節을 論하자면 桓雄이 主人公이어야 한다. 한번 朝野間에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桓國의 皇太子中의 한사람 (庶子) “桓雄”이 父王 桓因의 命 (遺往理之하라!) 을 받드러 “率徒三千” (이것은 大規模의 軍事行動!) 하여 “太白山頂神壇樹下” 를 征服하여 세운 나라를 “謂之神市”라 했고 이를 “是謂桓雄天王也”라 한다 했다. 그러므로 太白山의 神市開天은 桓國의 皇太子 桓雄이 軍事行動으로 征服하여 세운 征服國家로서 지금 “바이

穀生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時有一態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雄願化為人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日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態虎得而食之忌三十七日態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態女者無与為婚故每於壇樹下呪願孳雄乃假化而婚之生子号曰壇君王俟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都平壤城始称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忽山又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葳唐京後還隱於阿斯達為山神壽一千九百八歲唐裴矩伝云高麗本孤竹國

칼호로 予想되는 桓國聯邦에서 東南下하여 세운 나라이다.

이때 「바이칼湖近方에서 西南下한 겨레가 저 須密爾國 (sumer) 이다.」 (假說) 征服國家로서 出發한 桓雄의 나라 (神市)가 곰 (熊)을 “토템”으로 하는 原住民과 接觸하며 저들을 教化시켜 同化하는 過程에서 天神族인 桓雄과 地神族인 熊女사이에서 檀君이 誕生한다. 23) 勿論 「桓國 - 神市」 「神市 - 檀君朝鮮開國 (BC2,333)」의 사이가 正確하게 몇년이 되는지 알길은 없다. 다만 中國古典 (正史等)이 記錄한 三皇五帝等이 堯 (BC2350-2260) 舜 (BC 2255~2203)을 除 하고는 모두 檀君以前 곧 「神市」檀雄時代に 該當하고. 前示 歷代神仙通鑑等の “東戶氏” “燧人氏” “皇寧氏” 등이 桓國 (Bikal) ~ 神市時代의 人物들이다.

桓國을 오늘날의 Bikal湖近方으로 推定하는 것은 國內學者들 만의 我執이 아니다. 徐亮之 (中國史學者)의 「中國史前史話」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 熊女를 Totem 과 관련시키지 않고 天神族·桓雄과 처가 되는 地神族의 女人으로 解할 수도 있다」
더우기 上古語의 神은 “곰” “감” “가뮈” “가미”로 서 “곰 (熊) 과 通하기 때문에 여기 「熊 (곰)」을 Totem 과 관련없는 神女 = 곰녀에 對한 上古史說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本論에서는 兩說을 綜合하여 記述했다.

“ 細石器文化部族 最初乃居住 今西伯利亞的 貝加爾湖附近
他們乃中國傳說中的炎帝神農氏的本族也 ” (上記書 p164)

(細石器文化部族의 最初居住는 오늘날의 Bikel 湖附近인바 저들은
中國傳說中の 炎帝神農氏의 本族이다)

却說・黃河文明의 主体族은 두말할것도 없이 東夷族이다.

黃河文明은 黃河沿邊에서 하루아침에 솟아난 文明이 아니고 黃河文
明을 形成하기에는 많은 歲月과 文明의 發芽・成長・爛熟期를 假想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지어 人類의 發祥地와 人類最古의 文明이
라고 公認된 Sumer 文明과의 關聯性까지도 探究해내야 한다.

오늘의 實証史家들이 祖國史를 보는 視野가 (自稱 世界史的인
關聯속에서 韓國史를 본다고 하지만) 고작해야 祖國史를 中國史의
支流로 보고 外侵의 歷史라고만 보는 敗北主義에 젖어 있어 참된
民族史의 榮光을 開發하는 史學(學問)에 接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BC4,400 年頃에는 Egypt (埃及)의 統一國家가 建設되고 BC4,300
年頃에는 India (印度)에 Indus 文明의 全盛期를 이루고
BC 4,000 年에는 Babilonia 王國이 創建되고 BC 3528 年에는 太
昊伏羲가 그리고 BC2,333 에는 檀君이 登場한다.

韓國史도 이와 같은 「世界史的 關聯性!」속에서 實存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埃及・印度・바빌론・슈메르 등이 歷史活動文明開
發을 하는 동안 「東方世界」는 文明 以下の 「暗黒期」를 달려왔단
말인가? 아니라고 본다. 아니라고 보는 데 史學의 矜持와 勇氣가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와같은 非理를 實證的으로 扞拭하기 위해 「黄河文明」을 論했고 「sumer」를 論했으며 「三國遺事~昔有桓國」의 「속-뜻」을 吟味해 보았다. 이러한 史觀이야말로 實證史學이 말하는 世界史的인 關係속에서의 韓國史이다.

이러한 論旨위에서 오늘의 「實證史學!」은 加一層 奮發있기를 본다. 民族史의 榮光과 그 價值觀을 提高 開發하는것——民族史學의 完壁만이 이時点 이 空間에서 祖國을 起死回生으로 引導할 唯一한 通路이기 때문이다.

(대) 百濟의 榮光을 發掘한다.

~百濟는 韓半島西南方に 縮小된 나라가 아니다. 中國東海沿岸을 휩쓴 百濟의 國力과 榮光!~

오늘날 百濟國 (BC 18 ~ AD 660) 에 對한 現代人의 認識은 可謂 「鬪虎類貓」格이라 하겠다. 「호랑이」가 「고양이」로 認識된다면 正작 「호랑이」는 잊혀진 實在임이 分明하다.

버려진 女人보다 잊혀진 女人이 더욱 壽은 人生이란다.

잊혀진 祖國~百濟의 榮光이야말로 「壽은 現實!」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잊혀진 祖國史의 壽은 事緣을 밝혀 본다.

百濟는 과연 韓半島西南海岸의 倭小한 帝國이었던가? 아니다.

그의 享國 六百七十八年間에 中國의 東海岸·「北平에서 上海」에 이르는 中國의 沃土를 “四百餘年間” 植民地로 다스려온 植民國家~ 海洋帝國으로 君臨해온 榮光된 歷史를 지냈다. 韓國의 史筆이 主權을 되찾은지 三〇年 (一世代) 이 되는데 百濟의 榮光을 “벗치” 한

史筆이 아직 없었다. 왜가? 史筆을 잡은 자가 中毒 倭毒 洋毒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却說·中國의 正史(二十五史)는 百濟가 中國遼西地方(오늘날의 北平地區)에 植民地를 갖고 「自治百濟郡」했다는 글을 실었고 南齊書(中國正史의 하나)는 遼西~山東~上海에 걸치는 百濟植民地에 海外總督(太守)를 任命하는 東城王(479~501)의 國書를 大書特筆하고 있다. 國內史料로는 三國遺事(金一然)·三國史記(金富軾)·增補文獻備考(朴容大外 三十餘名)等에도 실려 있다. 三國史記에 실린 孤雲 崔致遠의 「太史侍中狀」은 다음과 같다.

高(句)麗百濟全盛之時 強兵百萬南侵吳越北撓幽燕齊魯為中國巨蠹 隋皇失馭由於征遼貞觀中 我唐太宗皇帝親統六軍渡海恭行天罰 高麗畏威請和 文皇受廻巘 此際 我武烈大王請以犬馬之誠

(三國史記 卷四十六 崔致遠傳)

(高句麗·百濟가 全盛할 때 強兵百萬이 南으로 「吳越」(上海等地)를 侵略하고 北으로 幽州 燕나라 齊나라(山東) 魯나라(山東)을 侵入(취어 흔들어 「撓」)하여 中國의 「巨蠹」(큰 좀벌레)가 되었다. --- 下略)

이 글은 崔致遠이가 唐나라 「太史待中」(內務次官級) 앞으로 보낸 書信이다. 이 「太史侍中狀」을 보면 崔致遠의 筆名은 東洋大文章家로 알려졌지만 그의 史觀은 事大主義로 가득 찼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곧 윗글中에 「我唐太宗皇帝---」와 「我武烈大王

---」은 崔致遠의 思想的國籍이 新羅人인지 唐人인지를 疑心케 하는 妄筆이며 唐太宗의 侵寇行脚을 「恭行天罰---」이라 表現하고 또 武烈大王이 「請以犬馬之誠」했다니 「犬馬」라는 不敬한 말을 함부로 自己 임금님께 쓰는 崔致遠의 思想이야말로 犬馬에 比喩될 수 있는 爲人이다. 그런데 그런 事大主義者가 「高句麗·百濟 全盛之時」에 「南侵吳越」하고 「北撓幽燕齊魯---」했다는 말을 敢히 唐나라 「太史侍中」에게 하였다면 적어도 高句麗·百濟의 「南侵北撓 之爭!」 그眞実! 그史実! 만은 움직일 수 없는 確実한 事象이라 하겠다.

아무튼 百濟가 中國을 征伐하고 그곳에 植民地를 가졌다는 記錄은 國內史料보다 中國正史側의 記錄이 더욱 仔細하고 豊富하다.

① 晉時 (AD264-420) 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挾有遼西. 晉平二郡 今柳城北平之間

(通典·百濟傳)

② 百濟-----後漸強大兼諸小國 本與句麗在遼東之東 晉世句麗既略有遼東百濟亦挾有遼西晉平二郡地矣 今柳城北平之間 自治百濟郡 (梁書五十四 百濟)

(百濟는 後에 漸次로 強大해져서 여러 작은 나라를 어우르고 百濟는 本來 高句麗와 함께 遼東의 東쪽에 있더니 晉나라 때 (264-420AD) 에 高句麗는 이미 遼東을 略有하고 百濟 역시 遼西·晉平의 二郡地를 挾有하다. 今日的 「柳城~北平의 사이」 나라. (註 柳城은 “河南省西幸縣에 있음)

百濟를 「韓半島에 屬縮된 나라」로 알고 있는 既成觀念에 挑戰

하는 史料가 여기에도 있다. 위의 樂壽는 (2) 「百濟 - - - - 本与 句麗 在遼東之東」이라 하지 않았는가? 곧 「百濟는 本来 高句麗와 함께 遼東의 東쪽에 있었다」고 한 것이다. 百濟만이 아니다. 新羅도 韓半島의 慶州地方에 못박힌 小國은 아니었다. 滿洲源流考는 말한다.

吉林周以前為肅慎地 漢以後屬挹婁 靺鞨. 唐初為新羅之雞林州 (上書 卷八 疆域·吉林) (吉林은 周以前에는 肅慎 땅이오 漢以後에는 挹婁·靺鞨에 屬했다. 唐나라初에는 「新羅의 雞林州」였다)

또 滿洲源流考는 「新羅·百濟諸國은 모두 吉林附近的 땅」이라고 「激昂된 語調!」로 말한다.

唐時所稱雞林應即今吉林之訛 而新羅百濟諸國亦皆其附近之地 顧昔人 無能考証者 致明季, 狂誕之徒 尋摘字句 肆為詆毀 此桀犬之吠 無庸深較而舛悞之甚者 不可以不辨 (欽定·滿洲源流考 卷首)

(唐나라 때의 이른바 「雞林」(鷄林)은 应当 「吉林」의 訛傳이다. <筆者註·中國音의 「雞林」 「吉林」은 다같이 「찌링」이다> 그리고 新羅·百濟諸國은 모두 吉林附近的 땅이다. 도리켜보건대 옛사람들이 考証에 無能하여 明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狂誕의 무리들이 字句를 쫓아 방자하게 毀辱을 들춰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일은 「桀王의 개」가 짖는 소리 같은것이며 깊이 색여 들을 必要도 없지만 誤謬가 甚한것은 不可不 辯解하지 않을 수 없다)

「滿洲源流考」는 東夷系인 淸나라의 乾隆皇帝의 御命에 依해 쓰여진 欽定史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激昂된 文体」는 “피는 물보다 길다”는 萬古의 哲理를 實証하는 것이다. 「滿洲源流考」가 百濟의 遼西植民地에 關해서 쓴 글은 더욱 具象적이고 印象的이다.

晉時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略有遼西 晉平唐柳城北平之間，
通考，高麗以百濟為金州 金馬郡 謹案 百濟與新羅壤地相錯
陸書云 “南接新羅” 唐會要言 “東北至新羅” 考 百濟之
境 西北 自今 廣寧 錦義 南臨海 蓋東極朝鮮之 黃海，忠清，
全羅等道 東西狹 南北長，自柳城北平計之 則新羅在其東南
自慶尙 熊津計之 則新羅在其東北，王都 東西兩城 號固麻城
亦曰居拔城 (同書 卷五 百濟都城)

(晉時에 高句麗는 이미 遼東을 占有하고 百濟 역시 遼西·晉平의 二郡을 占領하니 唐나라 柳城과 北平사이다.)

通考(冊名) 말하기를 “高句麗는 百濟를 金州金馬郡이라 한다” 했다.
<筆者註·이대목은 廣開土大王碑가 “百濟·新羅는 「旧時居民」이다”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統一新羅以前에 高句麗에 依한 統一이 있었
던 것을 示唆하는 것임> 按컨대 百濟와 新羅의 疆域은 서로 錯
雜하다 「陸書」는 “百濟가 新羅를 南接한다”고 했고 「唐會要(冊
名)」는 “百濟의 東北에 新羅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百濟의 境界는 西北의 廣寧, 錦義<註·南滿洲遼寧省>로 부터
南으로 大海를 넘어 朝鮮의 黃海 忠清 全羅等道에 미치니 東西는

좁고 南北은 길다” 故로 柳城 北平으로 부터 計算하면 新羅는 百濟의 東南에 있다는 卍 書의 말 (上見) 이 맞고 慶尙道 熊津부터 計算하면 “百濟의 東北에 新羅가 있다”는 唐會要의 말 (上引用) 이 옳다.

百濟의 王都는 東西에 兩城이 있으니 固麻城 或 居拔城이라 한다 이토록 「滿洲源流考」는 百濟의 海外疆域을 正式의 百濟領域으로 認定하여 그 四圍의 位置를 論한것이다.

심지어 百濟를 羅唐聯合軍으로 滅亡시킨 唐나라의 正史-「新舊唐書」의 百濟傳마저도 百濟의 疆域을 다음같이 論及했다.

百濟國 - - - 處大海之北 小海之南 西渡海 至越州 (新唐書 卷二二〇, 列傳 145, 舊唐書 199, 列傳 149)

(百濟國은 大海<東支那海~太平洋>의 北·小海<黃海~渤海>의 南쪽에 處해 있으며 西쪽으로 바다를 건너 「越州」(上海等地)에 이른다. <筆者註·「上海~淮江」사이 (江蘇省)에 「小海」라는 地名이 있으니 「小海」를 海名아닌 地名으로 보아도 無妨함>

일찌기 日本의 植民史家 吉田東伍도 唐書의 이 記錄을 指摘하여 百濟의 海外植民活動을 拳論한 바 있다.

그러나 百濟의 海外植民-黃金時代는 東城王<百濟 24代王 479-501의 22年間> 年代인 듯 하다.

東城王年代는 마침 中國의 南北朝時代로서 楊子江을 사이에 두고 北쪽에는 拓跋氏의 魏가 차지하고 南쪽엔 齊·梁·陳·宋等 群小國이 南北으로 對峙하던 年代이다. 이 때에 百濟는 楊子江以南의 南朝諸

国과 和好하고 北朝의 拓跋氏-魏나라와는 銳利하게 对敵하는 時代였다. 그러므로 中国正史·「南齊書」에는 百濟가 北魏의 疆域을 侵略하여 北으로는 北京에서 부터·南으로는 上海等地에 이르는 中国大陸의 契地를 強占植民하는 榮光된 記錄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여기 注目할 事件이 있다. 現存하는 「南齊書」의 百濟傳은 “그 百濟의 榮光을 収録한 序頭部分”이 어떤 史敵輩의 毒手에 依하여 뜯겨 나가고 그 밑에는 「此下缺文」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空欄」이 마련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迂餘曲折’을 겪은 南齊書 百濟傳이 그 「此下缺文!」의 「空欄」다음에 収録한 史料는 百濟가 晋世 (AD264 ~ 420) 에 「遼西郡」 「晋平郡」을 占領한 以來 東城王때에는 그 勢力을 더욱 擴大하여 山東半島와 「淮江~上海」를 席捲한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臣所遣行建威將軍 広陽太守兼長史臣高達 行建威將軍 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会邁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 - - - - - < 中略 > (高) 達 辺効夙著勤勞公務 今仮行竜驤將軍帶方太守 (楊) 茂志行清壹 公務不廢 今仮行建威將軍 広陵太守 (会) 邁 執志周密 屢致勤効 今仮行広武將軍清河太守 (南齊書·百濟傳)

이 글은 百濟東城王이 百濟의 將相들로 하여금 中国東海岸 (北京~上海)을 다스리는 海外總督 (太守)으로 任命하고 이를 友好關係에 있는 「南齊」의 国王 (蕭道曠)에게 通告하는 函書이다. 附 (地圖 参照)

人 名	階級・官等	前 職	(轉勤) 新 職	管轄 (統治) 区域
高 達	建威將軍 長 史	広陽太守 (北平地方)	帶方太守	遼寧省~山海關附近 (北平에서 北方進出)
楊 茂	建威將軍 司 馬	朝鮮太守 (北平地方)	広陵太守	淮江~上海 (揚子江) 사이의 平野 (北平에서 南方進出)
会 邁	宜威將軍 參 軍	(未詳)	清河太守	黃河以南~山東半島 (北平에서 南方進出)

그런데 이 国書는 南朝의 蕭子顯 (梁人)이 쓴 中国正史 (南齊書)에 収録된 것이기 때문에 百濟・東城王이 二十三年간의 亨国 밖에 누리지 못한 蕭氏齊 (479 ~ 502)에게 「称臣」하고 上揭・百濟將相들의 人事移動을 允許, 裁可해 달라고 請願하는 国書로 偽裝記錄되어 있다. 웃기는 일이다. 七百年 社稷의 百濟가 二十三年간의 亨国을 누린 조무라기 王朝에게 称臣하여 「且玄沢靈休 万里所企 況親

趾天庭 乃不蒙賴 伏願天監 特愍除正...」²⁴⁾ 라고 할 理가 있는가?

南齊의 二十三年間 (479 ~ 502) 은 우연히도東城王의 享年 (479 ~ 501) 과도 꼭 같다. 또 南齊二十三年間에 登落한 임금의 都合 七人이니 임금의 平均治年이 三年이며 이 國書를 받은 南齊王 蕭道曠 (소도이) 만이 崎嶇 (기구) 하기도 十年間의 王位를 누렸다.

中國古典의 이런 史筆怪僻은 上古史學의 初心者들이 緊히 알고 있어야 할 事項이다.

東城王十七 (四十五) 年 南齊의 明帝에게 發한 國書를 보면 (역시 「南齊書」에서)

沙法名을 邁羅王으로 封하고

贊首流를 群中王으로 封하고

解禮昆을 弗中王으로 封하고

木干那를 面中侯로 封한다 하는 句節이 있다 (原文)²⁵⁾ 여기

24) 크신 恩沢과 靈妙하게 休美하시옵은 万里밖에서 仰慕하는 바이며 況且 親히 「天庭」에 到達한 바 依賴하는 마음이 어찌 없아오리오. 天覽을 伏願하오니 特히 측은히 여기사 任命하여 주시옵소서」.

25) 去庚午年， 猶弗俊， 率兵深逼， 臣遣沙法名等領軍逆討， 宵襲靈擊， 旬梨張惶， 崩若海蕩， 乘奔追斬， 僵屍丹野， 由是摧其銳氣 鯨暴滔凶。 今邦宇謐靜， 實名等之略， 尋其功勳， 宜在褒顯，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為行安國將軍， 群中王， 解禮昆為行武威將軍， 弗中侯， 木干那前有軍功， 又拔臺舫， 為行廣威將軍， 面中侯， 伏願天恩， 特愍聽除」又表曰「臣所遣行龍驤將軍， 樂浪太守兼長史臣慕遺， 行建武將軍， 城陽太守兼 司馬臣王茂， 兼參軍， 行振武將軍， 朝鮮太守臣張塞， 行揚武將軍陳明， 在官忘私， 唯公是務， 見危授命， 蹈難弗顧， 今任臣使， 冒涉波險， 尽其至誠， 實宜進爵， 各假行署， 伏願聖朝特賜除正」， 詔可， 並賜軍号。 (南齊書·朝鮮列傳)

沙氏, 贊氏, 解氏, 木氏는 모두 百濟八大姓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見 「隨書」 百濟傳) 또 東城王의 이 國書中에는 中國을 다스
리던 다음 다섯太守의 百濟官吏에 關한 記錄이 있다.

帶方太守 高達 (現職) …… (遼寧省~山海關)

広陵太守 楊茂 (現職) …… (淮江~上海 (揚子江))

清河太守 會邁 (現職) …… (黃河以南~山東半島)

城陽太守 王茂 (現職) …… (山東省~南清州)

樂浪太守 慕遺 (現職) …… (北平~遼河)

南齊書가 傳하는 百濟將軍들의 活躍相은 言語의 表現을 超越하는
淒絶한 勇猛性を 보여준다.

去庚午(四九〇)年 狁狁(北魏를 말함) 弗俊 拳兵深逼 臣遣沙
法名等 領軍逆討 宵襲擊 匈梨張惶 崩若海蕩 乘奔追斬 僵屍丹野
由是摧其銳氣 鯨暴凶 今那字諡靜 (南齊書 百濟傳)

(지난 庚午年 北魏가 改俊치 않고 拳兵하여 깊숙히 쳐들어
오매 朕(臣-東城王)은 沙法名將軍等を 보내 軍을 이끌고 逆襲하
여 未明(새벽)에 敵을 치니 그소리 우뢰치는 것과 같고 敵軍은
張惶하여 崩壞함이 바다물이 밀리는 것과 같았고 敗走하는 者를
뒤쫓아 斬하니 쓰러진 屍體가 들판을 붉게 물들였고 이로 因하여
그銳氣를 꺾고 고래(鯨) 같은 暴虐者는 그凶牙를 감추다.)

이 沙法名 贊首流·木干那·解禮昆 等の 北魏征伐은 韓中兩國史에
劃期的인 戰鬪로서 百濟는 이 戰爭에서 東清州(不其城)
北清州, 南清州 곧 山東半島를 完全 掌握하고 오늘날의 「濟南~

徐州」(清河郡~城陽郡)를 席捲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같은 百濟의 榮光을 「見而不知」하는 靑盲史眼이 이나라의 主流史學임을 어찌하랴? 事大史家 金富軾의 三國史記에도 「資治通鑑」(司馬光著)의 글을 옮겨 놓은 百濟戰捷記(魏軍擊破)가 실려 있지만 現役主流史家들은 이 記錄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겨댄다. 다음 三國史記와 資治通鑑의 記錄에 보이는 「百濟」는 中原땅에 進出한 「百濟郡」이지 韓半島 西南에 자리한 「百濟」가 아니다. 그런데 中國山西地方에 있는 魏나라 軍士가 飛行機도 타지 않고 韓半島의 西南으로 쳐들어 왔다면 想像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밖에, 그래서 三國史記의 다음 記錄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東城王三十年(AD 四八八年) 魏遣兵來伐為我所敗 (三國史記 卷二十六 百濟本紀, 東城王) 永明六年(AD 四八八年) 魏兵擊百濟為百濟所敗(資治通鑑, 一三六 帝紀三)

(東城王三十年에 魏兵이 來襲하였으나 百濟에 依해 敗한 바 되었다)

百濟의 遼西, 晉平郡 및 東城王年代에 設置된 廣陽郡, 清河郡 등은 拓跋魏氏의 땅을 빼앗아 만든 百濟植民地이며 魏나라와는 國境을 맞대고 있거나 「指呼之間」의 距離에 있다. 그러므로 위의 記錄은 비록 簡潔하나마 百濟의 榮光된 戰捷記인 것이다. 上古史의 推尋에서는 비록 單簡片文일지라도 疎忽히 해서는 안된다.

(百濟)……自晉宋齊梁 拋江左 後魏宅中原

(周書, 四十九, 百濟傳)

(百濟)……自晉宋齊梁 拋江左右

(北史 百濟傳)

비록 “十字”안밖의 記錄이지만 이記錄이 含蓄하는 뜻은 實로 크다. 곧 “百濟는 晉, 宋, 齊, 梁나라 때 부터 揚子江 左便(北쪽)에 雄拋하였고 後魏(拓跋氏) 때에는 中原大陸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記錄이다. 더우기 「北史」는 「拋江左右」라 하였으니 揚子江 南北(兩岸)을 다 차지 했다는 뜻이다.

「잊혀진 祖國, 百濟의 榮光」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百濟의 「中原植民史」의 上限과 下限線을 示唆하는 다음 두 史料를 紹介한다.

古爾王十三(AD 246)年 秋八月 魏幽州刺史, 母丘儉 与樂浪太守劉茂, 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軍真忠 襲取樂浪邊民 (三國史記, 卷二四, 百濟本紀)

(古爾王十三年에 魏 나라 幽州(北京地方)刺史인 母丘儉(관구검)이 樂浪(역시 北京근처)太守인 劉茂와 朔方(北京北方)太守인 王遵과 함께 高句麗를 攻擊하다 <註, 「幽州」, 「朔方」은 이웃한 地域이기 때문에 共同軍事行動이 可能했다. 特히 樂浪은 平壤近處가 아니고 遼西地方임을 留意하여야 한다 > 古爾王은 그 「虛」를 틈타 左將軍 真忠을 보내 樂浪(=遼西)의 邊地를 襲取하다)

從來 이 史料는 百濟가 高句麗의 南쪽에 있는 平壤近處를

襲取한 記錄으로 看做하여 重要視하지 않았다. 「襲取樂浪遼民」의 「樂浪」을 平壤으로 錯覺했기 때문이다. 「青盲史觀」이라는 概念은 이래서 成立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史料는 百濟植民史의 上限線이라 할 AD 246年 보다도 훨씬 앞서서 百濟勢力이 遼西近處,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史料이다.

왜 그런고하니 母丘儉, 劉茂, 王遵等이 高句麗를 치러간 틈을 타서 古爾王이 遼西에 侵入한 것을 보면 韓半島의 百濟땅에서 그렇게 쉽사리 黃海를 건너 遼西에 進出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却說 百濟의 中原 植民地史의 下限은 아무래도 百濟가 羅唐聯合軍에 被滅되기 直前까지로 推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既述한 中國正史記錄에서 우리는 晉世(264~420)에 「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挾有遼西……云云」하는 여러가지 글을 보았다. 그런데 怪異하게도 中國史筆은 百濟의 遼西進出 事實을 告白하면서도 그 年代의 上限 下限을 밝히지 않고 다만 「晉世」라고만 적은 것이다. 그런데 資治通鑑(司馬光著)만은 例外로 이 「晉世」를 「唐時」(618~907)로 적고 있다. 百濟의 滅亡은 周知하는대로 AD 六六〇年이다. 그러므로 百濟의 中原植民史는 「唐初」(AD 618年)에서 百濟滅亡(AD 660年)까지 「五十年間」의 어느 年代를 그 下限線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百濟는 그 亭國(BC 18~AD 660) 六百七十八年 동안에 그 殆半의 期間인 約四百年間을 中原大陸에서 榮光스러운 歷史를 누려 왔던 것이다.

잊혀진 祖國~百濟의 榮光을! 어느때까지 이대로 잊혀진 채로

放置할 것인가? 그럴수 없다. 況且 그것이 北傀史學의 偽裝戰術을 打倒하고 南北間의 理念鬪爭에서 우리가 勝利할 수 있는 捷徑임에 있어서랴? 北傀가 政治上, 理念上의 理由로 開發할 罣두도 내지 못하는 中原大陸(오늘의 中共) 沿革史! 그속에서 펼쳐지는 民族의 大파노라마! 여기에 北傀를 무찌를 수 있는 民族史學의 끝없는 底力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야 말로 物理的, 力學關係= 戰爭手段이 아닌 理念思想 哲學 體制의 優越을 통한 平和的 國土 統一을 模索하는 새 룩고도 雄壯한 試圖임을! 宣言한다.

(1) 東夷武力의 特性

~ 그것은 韓國史의 歷史精神이다 ~

眞理는 항상 平凡한 곳에 있다.

韓國史를 縱深으로 貫徹하는 歷史精神, 民族史의 指導理念은 高尚하고 複雜한 學說이나 理念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花郎五戒 儒仙의 宗教教理等 韓國精神에 影響을 주고 支柱가 되어온 精神文化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精神文化의 根底를 흐르는 「理念」이나 「哲學」은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를 「忠」이라 定義한다. 「忠」은 現代的概念의 愛國, 나라사랑이다. 이같은 眞理는 五千年을 連綿히 이어온 韓國史의 展開 패턴이 이를 雄弁하고 있다. 勿論 「忠」「愛國」이라는 概念은 現實的으로 陳腐하고 世俗的인 냄새를 풍기는 것인지도 모르

겠다. “버린 불이 집 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된다”는 「바이블」의
格言처럼 陳腐하게 世俗化된 「愛國」(忠)의 概念속에 韓國史의
「正統」을 起死回生 시키는 「活力素」와 「真理」가 있다는 事實
이다.

이제 韓國史의 展開패턴과 本質속에서 「愛國」의 精髓를 抽出코
져 한다. 東洋史는 中原大陸의 支那族과 周邊을 包圍하고 있는 狩獵民族—
「알타이族」의 角逐史라고 하는 側面을 지닌다. 그런데 韓國史의 本質은
어느쪽이나 하면 狩獵族의 歷史이며 支那史는 傳統的 農耕族의 歷史
이다. 그런데 世界文化史는 「狩獵族이 農耕族을 蹂躪하고 支配하여
왔다」는 「文化史的 通則」를 提示한다.

이같은 通則이 韓國史에서만 例外가 아닐진대 韓國的, 敗北主義는
實로 韓國史의 本質과는 無緣한 後天的 強迫概念에 不外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族~ 東夷」를 武斷一辺倒의 蒙昧無知한 蠻
族으로 格下 하라는 뜻이 아니다.

알타이族 一般에는 果然 蠻族다운 性格을 지닌 民族이 많이 있
었다.

그러나 東洋古典이 狩獵族인 東夷를 描写하는 態度가 本質적으로
異色的 讚美型, 憧憬型이 었다는 事實은 東夷族의 「武斷의 次元」
을 示唆하는 많은 暗示를 준다.

위선 儒敎의 大宗師, 孔子가 그의 生前에 「欲居九夷」……를
의쳤다는 事實도 그렇거니와 許慎의 「設文」(漢文玉篇의 原祖)에
「夷」를 풀이한 것을 보면 차라리 神秘롭기 까지 하다.

朝鮮은 東夷인데 天性이 柔順하여 「西南北」 三方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夷」는 「東方人」을 말하며 「大」와 「弓」을 뜻하는 말이다. 夷字는 甲骨文字의 「𠄎」인데 古文의 「仁」과 같다. 「蠻閩」은 「虫」에서 「貆」은 「犴」에서 「美」은 「羊」에서 따온 말이니 모두 異種이며 「夷」만이 「大」를 뜻하는 말이다. 「夷俗」은 仁하고 壽하여 「君子不死之國이 있기에 이르렀다. 故로 「孔子도 九夷에 살고 싶노라」한 것이다.⁹⁾

뿐만 아니라 中國의 經典「禮記十二, 王制」는 夷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한다.

「夷」는「仁」이다. 「仁」하여 萬物을 살리기를 좋아한다.

「戒」은 「凶」이다. 斬伐殺生에 그 中庸을 얻지 못하고

「蠻」은 「慢」이다. 「君臣」이 同川에서 沐浴하며 簡慢이

「極」에 이르며 「狄」은 「辟」이다. 父子嫂叔이 同穴에 居하니 그 行爲가 「邪僻」하노라. (原文 26)

中國古典인 設文과 禮記는 「夷」를 武斷의 象徴인 「弓」, 「大」로 풀이하는가 하면 武斷과는 相剋 觀念이 되는 甲骨文字의 「𠄎」 古文의 「仁」과도 같은 것이라 했다. 또 「夷」는 「柔

9) 朝鮮東夷 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夷東方從也 從大從弓 夷字作
 …… 𠄎 与古文仁同蠻閩從虫 從大 貆從犴 美從羊 皆異種 夷獨從
 大 夷俗仁壽 有君子不死之國 故子欲居九夷也 (說文 通訓定聲)

26) 夷者仁也 仁而好生萬物 戒者凶也 斬伐殺生不得其中 蠻者慢也,
 君臣同川而浴 極為簡慢 蠻者慢也父子嫂叔同穴而居 其行邪僻
 (禮記 十二 王制)

順하며 - 「仁하며…」 「君子不死之國」이다. 「仁하고 壽하다…」 「孔子도 欲居九夷라 했다」 「東方의 夷는 西南北 - 三方의 野蠻과는 다르다」 등으로 讚美, 憧憬했다. 「武」와 「仁」을 二元論的으로 「캐치」하지 않고 「一元論的」으로 看倣하는 中国古典의 東夷觀!」 이것은 바로 東夷武斷의 次元을 聖化하는 中国古典의 「審美眼」이다. 弘益人間이라는 建國理念은 實로 「仁」이나 「사랑」만을 強調한 人道主義나 世界主義的 世界觀의 發想만이 아니라 여기에 「武」와 「仁」을 調和統一한 韓國哲學의 極致를 表象한 理念이라 하겠다.

또 中国古典은 東夷族을 狩獵人으로 規定하여 「引弓之民」이라 했고 匈奴王 老上 单于(선우)는 農耕族인 支那天子(漢高祖)를 가리켜 「嗟! 土室之人아!」²⁷⁾ 라고 叱咤(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東夷肅慎等の 記事와 함께 屬性(附屬物)처럼 따라 다니는 檀弓 楛矢 石鏃等은 東夷의 狩獵的 性格을 實証하는 것이다.

또 禮記에는 檀弓篇이라는 「篇名」이 있고 저 有名한 「千步弓」의 故事는 統一新羅代의 唐나라 까지도 그 技術을 부러워 하여 輸入하려 했던 것이다.

27) 皆令長大倨傲其辭 自称天地所生日月所置 匈奴大单于(中略)

今中国雖云有禮儀及親屬益疎 則相殺奪以至易姓皆此類也

嗟土室之人 願無多辭嘆嘆佔佔 願漢所輸匈奴絀米^絀 米^絀 令其量中 必美善而已矣 何以言為乎 且所給備善則 已備若惡則 候熟以騎馳 蹂而稼橘耳(資治通鑑 卷十四 漢紀六 文帝)

却設, 東夷族의 歷史 - 韓國史의 本質은 傳統的으로 狩獵族의 特性和 그 展開 패턴 을 지녔다. 따라서 狩獵人의 生活은 農耕族과는 判異한 것이 있다. 原始林속에서 무서운 猛獸와 對決하는 原始狩獵人의 生活을 想像해 보면 알만하다.

狩獵人에게 있어 部族이나 團體(終局엔 國家)는 곧 生命의 保全手段이다. 團體를 떠난 개인의 狩獵이란 「죽음」의 概念과 直結된다. 다시 말하면 狩獵族의 生活信條는 部族 - 團體 - 國家를 떠나서 「個人의 安全」은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生活속에서 狩獵人들은 團體(곧 國家)에의 「忠誠!」 곧 「愛國!」이라는 道德律을 體得하게 된다. 한편 農耕族, 支那人의 경우는 다르다. 저들은 團體 - 곧 國家에의 忠誠이라고 하면 例컨대 賦役이나 義務兵役따위 - 이는 農期를 놓지는 「죽음」의 概念으로 直結된다. 더우기 中國史는 無數한 外侵과 戰亂으로 「史統의 斷絶」을 茶飯事로한 歷史였다. 이러한 受難의 歷史속에서 支那人들은 나의 生命과 財產을 依託할수 있는 믿음직 스러운 安息處는 國家가 아니라 차라리 家族(庭)이다 라는 哲學을 體得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世界에 類例없는 大家族制度」를 創設하게 되었고 이 家族制度의 運營과 秩序維持를 爲해 「忠誠」보다 「孝道」를 앞세우는 「價值觀」이 생겨났다.

同一한 儒敎文化圈에 屬해 있는 韓中兩國이지만 韓國은 君主나 國家에의 「忠誠」을 第一의 德目으로 삼고 中國은 「孝道」를 앞

세 운다.

이같은 史實은 韓中兩國史의 「傳統」속에 歷歷히 엮보이고 記述되어 왔다.

花郎五戒의 德目中 「事君以忠」「臨戰無退」는 곧 「忠」의 宗教的 昇華이며 乙支文德 - 三別抄 - 李忠武公의 愛國忠誠은 바로 韓國精神 - 忠思想의 連綿한 歷史事象이다. 忠=愛國은 이토록 韓國史의 「本質」속에 깊숙히 뿌리박은 韓國的 "얼"이다. 愛國(忠)을 陳腐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不条理! 이는 韓國史의 發展을 阻害하는 歷史의 雜草들이다.

오늘날 이나라가 時急히 復活시켜야 할 最大의 價值觀 그것은 저 雜草 속에 파묻혀 있는 「愛國」을 復活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分斷祖國의 再統一을 가져다 줄 現代 花郎의 誕生이라고 할 것이다.

勝共統一을 爲해 「어느 花郎의 復活!」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韓國의 所望! 이는 「愛國」의 生活化! 「나라사랑」의 土着化! 「忠」의 現代的昇華로 비로소 成就된다.

(4)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

(가) 빛나간 民族史學(觀) 批判

經濟立國 自主國防等 安定基調가 다져지면 질수록 이러한 安定 基調를 永続化할 수 있는 「哲學」이나 「精神的 構造改善問題」도 손질해야 겠다는 自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平和的 國土統一」이라는 民族的 宿願을 앞에 놓고 朝野는 勝共

理論의 學術化 勝共戰略의 哲學化라는 次元에서 多面的인 摸索이 試圖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正작 安定基調나 勝共理念 勝共戰略의 具体案이 무엇이냐? 하는 設問에는 대개가 「沈黙!」하고 만다. 勿論 具体案은 華麗한 「口號의 合唱」이나 外向的 “캐치 푸레이스”만으로 解決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華麗한 口號나 “캐치 푸레이스”의 公害속에서 살고있다. 그렇다면 問題의 具体案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불음에 對하여 敢히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이라는 解答을 提示한다.

그러나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이라는 大命題에 한발 앞서 解決되어야 할 또 하나의 前提가 있다. 그것은 民族史觀을 造成하는데 있어 그 基盤이 되는 「史學」自體의 問題性! 곧 「民族史學에 對한 認識」의 改善이다. 歷史學會의 全海宗 教授는 말하기를 「八.一五以前에는 民族史學이 主流를 이루었다. 光復後에는 經濟史學(代表 白南雲)이 盛行했다. 그러나 六.二五動亂後에는 實證史學이 主流를 이룬만큼 우리의 使命은 크다(歷史學報 “韓國史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自負했다. 또 歷史學大會(第十五回)에서 梁秉祐教授는 말하기를 “十九世紀는 民族史學의 時代였다. 韓國에서는 丹齊 申采浩의 史學이 그 主流다. 丹齊는 「歷史를 我와 非我的 鬪爭」으로 規定했는데 民族史學은 我를 爲하여 歷史를 歪曲하고 我만을 強調한 나머지 國家와 民族을 戰爭으로 몰고간 先例를 남겼다”고 民族史學을 警戒했다. 한편 前記 全海宗教授는

民族史學을 規定하기를 “日本帝國主義에 對한 對抗史學으로서 實存
意義가 있었으며 日帝가 敗退한 지금 民族史學의 存立意義는 없다”고
한다.

實로 意味없는 獨白들이다. 民族史學의 存立意義를 否定하는 이
러한 史學風土속에서 「主体的, 民族史觀의 定立!」을 외치는 오늘
의 試圖가 얼마나 빛나가고 있는가를 吟味해 볼 必要가 있다.

問題의 核心을 正確히 알고 넘어가자.

前記 金海宗教授의 指摘처럼 民族史學과 實證史學은 本是 따로따
로 存立하는 二元的인 學問인가? 아니다! 實證史學은 民族史學을
研究, 發展시키는 現代的인 手段, 方法 및 傾向일 뿐이다.

지난날에는 民族史學이 「我」만을 爲하여 歷史를 歪曲하고 史實
을 誇張 美化한 史例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韓國의 일”이
아니라 “外國에서 벌어진 일”이며 더우기 韓國史를 直接 間接으
로 誤導, 歪曲한 이웃나라 日本이나 中國 및 「나치즘- 獨逸」같
은 나라의 史學인 것이다. 韓國史는 歷史의 粉裝이나 誇張은 枯
捨하고 깎이우고 汚染되고 侵奪당한 歷史였다. 史實의 誇張으로
인한 戰爭이나 國家破局보다는 오히려 民族史의 侵奪과 汚染으로
인한 民族史의 斷絶, 正統의 倒壞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丹齊의 「我와 非我(彼)의 鬪爭」을 나무라기에 앞서
서 “外國史의 일”과 “내나라의 일”을 識別하는 彼我的 識別眼
부터 갖추어야 한다.

특히 金海宗教授의 말처럼 民族史學이 鬪爭史學(日帝에 對한)이

라면 그鬪争史学의 本質은 “不變의 것”이어야 한다.

“日帝가 물러 갔다”고 해서 史学의 本質이 變質하는 그러한 間歇的史学은 存立할 수 없다. 日帝가 물러간 이나라에는 또다시 唯物史觀이라는 새敵手가 登場했다는 論理以前의 「現實!」을 直視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勝共戰略으로서의 民族史学 乃至 主体的, 民族史觀의 定立을 의치는 主旨가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 「史学, 歴史에 飛躍은 없다」 ~

歴史나 史学에 躍進, 跳躍은 있어도 嚴密한 意味의 “飛躍”은 없다.

十九世紀가 近代史学의 發芽 - 成熟期요 民族史学의 時代였다면 梁秉祐教授의 말처럼 韓國史에도 韓國史가 「主体的」으로 마지한 近代史学 = 民族史学의 時代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周知하는 대로 韓國史에는 日帝가 侵略用으로 携帶한 「他律的 近代史学」이 있었을 뿐 우리 스스로가 마련한 主体的 - 近代史学!은 存在하지 않았다. 丹齊史학과 為堂(鄭寅普)史学은 차라리 亡命史学이거나 民族史의 正統을 안간힘으로 지켜보려는 이른바 命脈史学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主体的으로 맞이하고 料理해 보지 못한 近代史学(世界史의 民族史学) 時代를 “飛躍”하여 一躍 世界主義的 現代史風에

말려들어 아직도 김치냄새 된장냄새 풍기는 스스로를 意識하면서도 「自称, 世界人然!」해야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몸부림은 하루 속히 이 나라 史學風土속에서 淨化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平和統一을 爲한 勝共戰略의 要諦이며 基調인 主体的 民族史觀을 定向, 定立하는 捷徑인 것이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歷史에 跳躍은 있어도 飛躍은 없다” 그러므로 民族史學은 韓國史가 마지막 主流史學이오 어차피 치루어야 할 歷史의, 代償이오 定해진 旅程의 「史學」인 것이다. 더욱기 勝共統一~祖國史의 永昌을 向한 「哲學」의 아쉬움때문에 이러한 認識과 正覺은 더욱 아쉽다.

(나) 世界主義史觀에 對한 警告

~ 民族史學 = 體制哲學의 等價式 ~

基督敎的 “四海同胞主義”나 저 古代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現代의 唯物史觀, 共產主義나 또 韓國의 實證史家들의 史觀! 이 모든 主義들이 理念(信仰)이나 時代的 背景이 相違하더라도 「脫民族的 世界主義」라는 概念에서는 共通點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問題로 提起코자 하는 世界主義는 唯物史觀, 共產主義의 世界觀 乃至 歷史觀인 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歷史的으로 또 本質的으로 共產主義의 好敵手는 오직 「民族史學-民族主義-民族的 主体意識」이었다. 뿐만아니라 民族意識이란 人類가 社會生活을 始作營爲하면서 最初로 갖게 마련

인 人類共通의 原初的 本能意識이며 國民(民族의 一成員)이라는 身分은 人類가 갖는 最初의 法律的 地位라는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國家」라는 意識은 「人類」「世界」라는 意識에 한발앞서 갖기 마련인 人類最初의 社會的 意識이다. 그러므로 人類의 本能에 바탕한 民族, 國家에 對한 이같은 意識을 無視하고 「民族보다 人類를」「國家보다 世界를」 高揚 注入하려는 온갖 試圖나 努力은 人類의 本能的意識을 欺瞞하고 歪曲시킬만큼의 威壓과 暴力(壓迫)를 前提하지 않고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의 이른바 「프로레타리아」의 階級獨裁는 그러한 論理에서 歸納되는 結論이라 할 것이다.

한편 基督敎的 四海同胞主義는 이같은 人間本能! 곧 「民族」「國家」에 對한 意識을 稀釋시키는 作用으로 「사랑」을 指導 原理로 하는 「信仰」에 依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階級獨裁와 같은 暴力이 作用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임(暴力)보다 強하고 믿음(信仰)은 論理를 超越한다」는 眞理가 基督敎的 世界主義를 지탱(支撐)하는 支柱요.

그 "에너지"源이다.

비록 共產主義와 四海同胞主義가 다같이 世界主義임에는 無違하나 그支柱哲學이 이토록 判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되는 것이 있다면 이 判異한 兩大世界主義의 物理的 力學對照다. 우리가 光復後 三〇年동안 살아온 「體制」는 어느쪽이나 하면 基督敎的 四海同胞主義 - 말하자면 自由民主主義의 社會體制였다.

「自由・民主主義! 그것은 唯物史觀, 共產主義의 敵手는 아니다」
이것은 三〇年을 自由民主體制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體驗을 통한
結論인 同時에 判異한 兩大世界主義의 「物理的 力学比重」을 对照
해 본 우리의 結論이다. 이제 우리는 唯物史觀을 이기고 平和的
인 祖国統一을 達成해야 할 現實的的使命을 앞에 놓고 있다. 또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우리들의 基本哲學~勝共統一의 戰略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自省과 自問이 底辺넓게 번져가고 있다. 그
렇지만 이미 序言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같은 自省과 自問은 있
으되 아직 明快한 「自答」이 結論되지 않았다.

祖国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를 앞에 놓고 우리가 「民族史學-
民族主義-(主体的)民族意識(史觀)」에 留意하는 理由는 바로 民
族史觀의 性格如何가 「勝共」과 「敗共」을 가늠하는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二次大戰때 獨逸의 共產主義者, 仏蘭西의 共產主義者
그리고 英國의 共產主義者들이 共產主義의 祖国-蘇聯이나 世界의
勞農階級을 위하여 싸운것이 아니라 各其 자들이 所屬된 祖国의
勝利를 為해 싸웠다는 事實!

그리고 「레닌.그라드」의 陷落을 目前에 두고 스탈린은 「世界의
勞働者여 團結하라!」를 외치지 않고 「슬라브民族이여 團結하여
祖国을 救하라!」고 외친것! 또 三國統一을 앞두고 新羅가 그
統一戰略의 原理로서 「花郎道」를 「復活」시켜 이 偉業을 成就했다
는 歷史의 教訓! 이 모두가 우리에게 示唆(시사)하는 바가 크
고 實로 嚴肅하다 다시말하면 民族主義(그바탕은 民族史學)이야

말로 人類가 發見한 最大의 自衛哲學이며 人類의 公敵(共產主義)을 擊滅할 수 있는 絶妙한 戰略原理인 것이다. 多幸히도 우리에게는 弘益人間의 建國理想(念)을 비롯하여 韓國史 5,000年을 縱深으로 貫徹한 「韓國魂-歷史精神」이 嚴存한다.

이에 우리는 기구한 歷史속에 滅失 汚染된 祖國史를 「復元→光復」하고 「弘益人間」「花郎(風流-風流道)」를 비롯한 「韓國-韓國史의 歷史精神」을 다시 이 歷史의 地平線위에 露出, 俱顯시켜야 한다.

~ 體制哲學의 要諦 ~

「勝共統一」을 위한 體制나 그 體制哲學 그리고 오늘의 維新體制도 의당 民族史學에 바탕을 뒤편만 한다.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立! 總和維新! 새마을精神! 維新理念의 俱顯! 初戰박살의 決戰態勢! 等 우리의 周邊에서 이같은 抽象化 機械化, 美化된 口號들이 公害를 빚고 있다. 그러나 이들 口號에 具體性, 生動感, 效率性을 賦與하는 活力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民族史學!」인 것이다. 口號나 슬로건에 앞서서 「韓國史의 正體, 真相이 어떤 것인가?」를 具體적으로 아는 「正覺!」 이것을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追求하는 勝共統一을 爲한 體制哲學 곧 올바른 民族史觀이 完成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特急한것이 韓國史의 真相, 正體, 現實을 具體的으로 알고 또 「韓國史의 榮光과 偉大」를 時急히 啓蒙 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作業을 通해서 비로소 韓國民族主義 - 主體的 民族史觀 그리고 平和的 祖國統一과 祖國의 無窮한 永昌繁榮을 겨냥한 「體制哲學」의 完成이 있게 될 것이다.

勝共의 길이 「民族史學→民族主義→主體的 民族史觀의 完成」에 있다면 勝共統一을 겨냥한 「體制」나 그 「體制哲學」도 의당 民族史學에 基礎해야 한다.

이것은 차라리 明若觀火한 論理일 것이다. 實로 民族史學을 外面하고 「體制的 合理性」을 찾고 「體制哲學」을 云謂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却說, 體制哲學은 따로 없다. 民族史學 民族史觀에 焦點을 맞추지 않은 「體制的 合理性, 當爲性」은 있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民族史學의 本格的 開發 研究를 高揚하는 眞意는 오히려 「史學外的」인 要因, 말하자면 「體制的」 要請이 보다 切實한 때문이다. 이같은 體制的 整備가 祖國의 勝共統一을 向한 哲學(精神)的 戰略基盤이 되기 때문이다.

(다) 「花郎」은 韓國精神文化의 集約的 具顯이다.

韓國古代史料에서 神秘로운 記錄들이 눈에 띈다. 三國遺事 古朝鮮(王儉朝鮮) 條末尾에서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為山神 壽一千九百八歲」라 했고 既述한 歷代神仙通鑑의 「東戶氏~皇覃氏

記錄」에 皇覃氏……遂逸入太白山!」 「有巢氏 治三百余歲而隱」 등이 있고 三國史記에도 「平壤者仙人王儉之宅也」라 있다. 「聖人無墓」라던가? 저~西域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죽은者の 무덤」은 없다. 즉 天人 神人 仙人에게 죽음의 概念은 本質적으로 容認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隱」(숨다)을 쓰거나 「逸」(=隱)을 「死」의 概念으로 代替하였다. 韓國을 흔히 「隱者」의 나라라 하며 이를 韓國史 乃至 韓國文化의 “停滯性”과 “消極性”으로 連結시켜 敗北主義적으로 解釋하여 왔다. 高麗三隱(面隱, 鄭夢周, 治隱吉再, 牧隱, 李堉)²⁸⁾이라는 雅号도 實相은 停滯性이나 敗北主義와는 因緣이 없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實로 韓國史의 「隱」은 仙敎(仙道)的인 緣由에서 비롯된 것이지 敗北主義的인 것과는 關係가 없다. 다시 말하면 韓國史는 위의 「仙人王儉之宅」에서 보는바와 같이 仙人王儉에서 始作된 仙史的인 側面을 지닌 歷史이다. 이러한 仙史的인 要素가 区體的으로 韓國史의 表皮 위에 露出된 것이 新羅때의 花郎(仙郎, 風流, 風月……等)이다. 그러므로 花郎을 新羅當代에 突然히 나타난 「精神文化」로 錯覺해서는 안된다. “氷山の 一角”이란 말은 이런 때 어울리는 表現일 것이다. 「花郎의 歷史上 表出」은 新羅朝때까지 濃度질게 깔려 오고 波濤쳐 온 仙史的 要因의 蓄積을 基盤하여 그것을 土壤으로

28) 斗溪, 李丙燾氏는 어떤일로 高麗三隱에서 治隱(吉再)을 매고 代身에 陶隱(李宗仁)을 넣었는지 알 수 없다.

하여 그것에 뿌리 박고 태어난 한송이 꽃에 不過한 것이다. 花郎의 一名을 「風流」 「風月」이라고도 한다.²⁹⁾ 어… 「風流」 「風月」은 「밝달→배달」을 漢文吏說文(이두문)式으로 적은것이 라고 安浩相博士의 近著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은 자세하게 說明하고 있다. 勿論 檀君의 「檀」(박달나무)도 「밝은 땅」을 나타내는 「古代語-밝달」을 적은 上古吏說(이두)이다. 이러한 論拠는 일찌기 丹齊, 申采浩氏(朝鮮史研究草)가 立論했고 最近에는 安浩相博士의 前記書가 이를 더욱 具體化했다. 곧 風流나 風月の 「風」은 「베람풍 바람풍」으로서 風의 訓音첫자에서 「배」·「바」를 따고 「流」는 「흐를류」인 동시에 「달아날 류」 이므로 역시 그 訓의 첫자를 따서 「달」이며 月은 그訓이 「달월」이니 까 그 「달」을 따서 자연히 風流, 風月은 「배달」「발달」이 된다. (詳細는 見 「民族의 주체성과 화랑열」) 그러나 어찌 風流나 風月の 「吏說술이」로서 만이 花郎이 檀君王儉까지 遡及되는 韓國精神文化의 「核」이라고 하는 論理가 成立된다고 하겠는가?

伏草, 崔仁氏의 「新人本 民主主義」(1963年)는 韓國神仙思想의 「物証」으로서 「人蔘의 祖國과 神仙思想」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民族文化의 土台인 神仙思想은 우리나라 特産인 人蔘에서 나왔다. 人蔘은 仙藥이라고 한다. 仙藥의 祖國은 우리나라다.무릇

29) ①修行於風月之庭(三國史記) ②風月主(輿地勝覽, 慶州, 風俗)
 ③風月徒, 風流(隸名於風流 黃卷: 三國遺事, 竹旨郎) ④風流徒, 花浪, 原花, 源花, 朝廷花主之間等 用例 많음.

思想이라는 것은 虛空中에서 創造되는것이 아니고 物的基盤과 生存的 土台위에서 창조된다. 仙藥인 人蓍의 祖國에서 神仙의 思想이 發生된것은 自然스럽고 當然한 일이다”(同書 P.126) 라고 主張한다. 勿論 長生不死의 「不老草」인 仙藥-人蓍은 우리나라 特産이오, 秦始皇을 비롯하여 漢나라 武帝年代까지도 支那의 帝王들은 이 仙藥을 求하느라고 血眼이 되어 있었다.

長生不死의 仙藥을 求하러 海東의 神仙國을 다녀왔던 秦始皇의 部下 徐市(서불, 或은 徐福)은 仙藥은 求得치 못하고 「亡秦者胡也」(秦나라를 亡칠者는 「胡」나라)라는 글씨가 담긴 海東의 「祕訣書」를 入手하여 秦始皇에게 바쳤는바 이때문에 始皇(政)은 東胡(東夷)에 對備하는 長城 곧 世界最大의 防禦障地인 万里長城을 쌓게된 것인데 始皇(政)은 自己의 不孝子息이 「胡」라는 이름(胡亥)을 가진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東北方의 強大한 狩獵族 東胡에만 마음이 쏠려 이런 無謀한 工事を 着手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胡亥에 이르러서 果然 山東六國을 統一했던 秦나라도 亡하고 말았으니 이는 仙藥-人蓍에 얽힌 有名한 故事의 하나이다.

神仙에의 渴望과 仙藥에 얽힌 魅力은 後日 中國式 仙敎인 「老子」의 道敎에서 이른바 「丹藥」 或은 「仙丹」「金丹」의 開發熱로 번져 나갔다. 이는 마치 西洋史에서 「鍊金術士」가 “金을 合成한다”는 口實로 「로마」皇室의 寵愛를 獨占했던 故事와도 恰似한 것이다. 이러한 對比에서도 東洋은 「生命人生」의 追求인

反面 西洋은 오직 「物質~唯物」의 追求라는 基本的 差異點이 露出된다. 前記 崔仁氏의 「思想은 虛空中에서 創造되는 것이 아니고 物的基盤과 生存的 土台위에서 創造되는것」이라는 主張도 자칫하면 「鍊金術士」나 「仙丹処方」 같은 唯物論的 誤謬를 犯할 , 公算이 큰 것이다. 그 實例를 든다.

蘇聯에서 스탈린 執權 때 慧星처럼 頭角을 나타내어 一躍 蘇聯 아카데미院長 까지 지낸 「라이젠코」(Lysenko)라는 生物遺傳學者가 있었다. 이 者는 Gregor Johann Mendel (1822 ~ 84 Australian) 以後 定說로 되어있는 「遺傳子 形質不變의 法則」에 挑戰한 것이다. 그는 가로되 「外部의 物質的 條件如何에 따라서는 遺傳子形質의 變化 또는 創造가 可能하다. 이와같은 物質的 條件에 依해서 얻어진 形質은 곧 「獲得形質」로서 「遺傳子形質」과는 別個의 것이다」라 했다. 萬一 Lysenko의 이學說이 事實이라면 「唯物論」은 學問的인 凱歌를 올리게 된다. 가령 Amino acid (아미노酸)을 만드는 것이 D.N.A.인데 이 D.N.A.를 合成해 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D.N.A.에는 物質作用 (Material Function)만이 專一하게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選擇作用 (Selective Function)도 均一하게 作用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Monod의 實驗) 여기 選擇機能은 다름아닌 物質作用에 對立하는 「精神機能」을 말하는 것이다. Lysenko의 學說이 事實이라면 合成된 「D.N.A.」는 그 「獲得形質」이 「遺傳子形質」의 機能을 發揮하여야 할 터인데 前示한 選擇作用

(精神機能)의 缺如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한것이다. 그러므로 Lysenko는 「후루쉬체프」執權과 함께 肅清 當했다. 當時 蘇聯에서는 Lysenko의 學說을 좇아 不毛地 “시베리아”에 播種할 수 있는 大麥(밀)을 「獲得形質의 創造」로써 解決함으로서 深刻한 食糧飢饉에 對備하려 했던 것이다.

要件대 外部的인 物質條件이 遺伝子形質이나 人間의 精神構造에 影響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決定的 要件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仙藥이라 하는 人蔘이나 中國道敎의 仙丹等이 神仙이나 仙敎(道敎)와 直接的 決定的 因果關係를 갖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前示 崔仁氏의 人蔘論은 神仙思想의 物證으로서가 아니라 韓國神仙思想의 促進劑로서 人蔘의 役割이 컸다는 것을 말한다.

却說, 韓國精神文化, 歷史精神의 真髓는 神仙思想-仙敎的인 趣向에 있다. 이러한 韓國精神文化의 真髓를 集約的으로 表現하고 具顯한 것이 「花郎」이다.

其後更取美貌男子粧飾之名花郎以奉之徒衆雲集或相磨以道義或相悅以歌樂遊娛山水無遠不至因此知其人正邪捫其善者薦之於朝故金大問花郎世紀曰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崔致遠字即碑序曰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敎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敎接化字羣生且如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司冠之旨也處無為之事行不言之敎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三國史記真興王三十七年條)(其後에 美貌男子를 取하여 이들을 粧飾하고 花郎이라 부르고 이를 떠바뜰다 그 무리가 구름같

이 모이니 或 서로 道義로서 練磨하며 혹 서로 歌樂으로서 즐기
 며 山水에 遊娛하는데 場所의 遠近을 가리지 않는다. 이로 因하
 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착한 者를 挾하여 朝庭에
 薦擧하니 金大問의 「花郎世紀」는 가로되 賢佐, 忠臣이 이에서 배
 어나왔고 良將, 勇卒이 이로 부터 誕生했다 하였으며 崔致遠의 난
 랑碑 序文은 말하기를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 한다.
 이教를 設한 淵源이 「仙史」에 仔細히 記錄되어 있다. 實로 이
 玄妙之道는 三教를 包含하였다. 衆生이 이道에 接하여 感化되니
 칩에 들어오면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아가면 나라에 忠誠하는 것은
 儒敎의³⁰⁾ 旨요 하염없는 일에 居하며 行은 있어도 말은 하지
 않는 가르침은 道敎의³¹⁾ 宗이오 惡을 行치 않으며 모든 착한
 일만을 바쁘려 行함은 仏敎의³²⁾ 教化니라)

新羅花郎은 前述한 東夷武力의 特性인 「仁」과 「武」의 調和, 國
 家에의 忠誠, 나라사랑을 制度的으로 昇華시킨 結晶体다. 實로 花
 郎碑 序文의 말처럼 韓國의 花郎道는 仙佛儒의 三教를 包含한 「玄
 妙한 道」이다. 「玄」은 「神」과 通한다. 故로 玄妙之道는 곧
 神妙之道이다. 이것이 곧 花郎이오 風月-風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玄妙한 가르침 神妙한 價值觀이 上述한 것처럼 新羅때에

30) 孔子가 魯에서 司冠벼슬 하였기 때문에 「魯司冠之旨」는 儒敎를 말함.

31) 柱史는 老子的 別名, 周나라에서 柱下史라는 벼슬을 하였기 때문

32) 竺乾太字는 釈迦牟尼이다. 곧 「竺乾太子文化」는 「仏敎」를 말함.

불속 솟아난것은 아니고 韓國歷史精神의 「氷山一角」일 뿐이다. 또 花郎精神이나 그制度는 新羅에서 終焉을 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韓國花郎을 輸入하여 이룩된 中世以後의 日本武士道에서 오늘날 또 하나의 現代花郎을 본다. 日本武士들이 부르는 노래 "나니와부시" (浪花節)는 花郎(浪)을 겨꾸로 적은 것이다. 倭人들의 이름(人名)에 「郎」字가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花郎의 輸入을 確認하는 物証이다. 그뿐인가 花郎은 高麗朝때에 더욱 完璧한 制度로 發展하였다. 高麗花郎은 仏教와 密着하여 韓國 仏教를 護國 仏教로 土着시키는데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이같은 史實은 다음 史料가 立証한다.

國俗幼必從僧習句讀 有面首者 僧俗皆奉之 号曰仙郎 聚徒或至千百
其風起自新羅 幷十歲出就僧舍 學性敏悟 受書旋通其義 眉宇如畫
風儀秀雅 見者皆愛之 忠烈聞之 召見宮中 目為國仙

(高麗史 一百八 閔宗儒傳)

(高麗의 國俗(制度)에는 어려서 반드시 僧門에 들어가 學問을 닦게 되어있는바 成績이 뛰어난者는 僧俗에 쫓아 이를 모두 떠바뜬다. 그리하여 그를 「仙郎」이라고 부른다. 그무리가 或千도 되고 百도 된다(仙郎을 따르는 무리) 이 風俗이 新羅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幼는 十歲때에 僧舍에 入門하였는바 學性이 敏悟하고 글을 배우면 즉시 그 뜻을 通達하고 眉宇가 그림 같고 風儀가 秀雅하여 그를 한번보면 누구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忠烈王(高麗二十五代王)이 이消息을 듣고 그를 宮中에

불러 들여 보고 国仙으로 指目하다)

이 史料에서 우리는 高麗때의 花郎制度가 오늘날의 義務兵役마냥 義務化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事實을 發見한다. 또 「花郎」과 「僧俗」을 同一視할만큼 密着되어 있음을 본다. 「其風俗이 起自 新羅」라하고 「国仙」(花郎의 指導者)이니 「仙郎」이니 하는 말은 모두 花郎에 関한 術語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一見 僧家에 関한 記錄처럼 보인다. 高麗 凶經을 積은 宋나라사람 徐兢도 高麗 開城에 와서 한달가량 묵으면서 그 見聞記를 積었는데 그도 高麗 花郎을 僧으로 보고(錯覺하고) 「在家和尚」이라고 表現했었다.

“在家和尚은 袈裝(僧服)을 입지 않으며 僧家の 戒律을 갖지 않으며 흰비단옷에 검은 띠(皂帛)를 두르며 맨발로 다니며 間或 신발을 신은者도 있다. 私家に 머무르며 子息을 갖고 키운다. 國家나 地域社會를 위한 賦役에서는 메고 지고 하는 일을 가리지 않으며 道路를 掃除하고 溝洫을 開治하며 城室을 修築하는 等 從事하지 않음이 없다. 辺方에 兵患이 생기면 즉각 團結하여 出動하며 비록 驅逐이 頻繁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其 壯勇함이 이룰데 없다. 軍旅之事에 関해서는 各人이 自己의 戰費, 食糧을 自担하므로 國費를 드리지 않고도 能히 戰鬪할 수 있다. 듣건대 契丹이 高麗에게 敗함도 바로 이 在家和尚(花郎軍)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들은 刑餘의 役人들이니 高麗人들이 그머리와 수염을 깎은 것늘 보고 和尚(僧)이

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原文³³⁾ 徐兢이 비록 開京에 한달 남짓 머무르면서 見聞한 記錄이지만 그의 觀察은 正確하다. 다만 머리깎고 淡白하게 살아가는 郎徒의 모습을 중(僧)으로 본것이나 「刑餘之役人」으로 錯覺한것은 内国人이 아닌 外国人旅行者로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僧이 不服袈裟하고 不持戒律했다는 事實은 이들이 和尚이 아니고 郎家임을 알 수 있고 「自為居室」하며 「髻婦鞦韆」하는 風習은 더우기 僧俗이 아니다.

항차 「刑餘之役人」들이라면 國家有事時에 自進하여 軍裝 軍費, 軍糧을 自担하여 그토록 壯勇하게 싸울수 있었겠는가? 이在家和尚의 글을 通하여 우리는 高麗 花郎軍의 實在와 저들의 服式, 服色, 習俗等を 알 수 있다. 特히 郎徒가 皂帛을 두르고 削髮하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暗示를 준다. 實로 皂帛(검은띠)은 저 高句麗의 花郎徒인 「皂衣仙(先)人」의 傳統을 繼承한 것이다.

어찌 高麗花郎의 典故가 「高麗凶經」뿐이랴? 世界를 征服한 史上初有의 世界帝國인 元나라의 兵士와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

23) 在家和尚不服袈裟, 不持戒律, 白紵羶衣, 束腰卑皂徒跣以行, 間有穿履者, 自為居室, 髻婦鞦韆, 其於公上負戴器用, 掃除道路, 開治溝洫, 修築城室, 悉以從事, 辺陲有警, 則團結而出雖不閑於馳逐, 然頗壯勇其繼軍旅之事則人自担糧, 故國用不費而能戰也 聞中間契丹為麗人所敗, 正賴此輩, 其刑餘之役人夷人以其髮削髮而名和尚耳 (高麗凶經第八 在家和尚)

까지 싸우다가 저濟州島에 까지 밀려간 百餘名の 三別抄가 玉碎했는데 이들이야말로 高麗國, 最後의 花郎軍인 것이다. 저 丹齊先生의 「一千年来 一大事件」(論文, 朝鮮史研究草)은 「妙淸」을 高麗 最後의 花郎이라고 指摘하셨다. 아무튼 花郎은 新羅一世에서 끝난 歴史的 産物이 아니라 高麗에서는 더욱 制度的으로 精神的으로 發展된 韓國精神文化의 精髓요 核心이다.

이제 끝으로 考察해 볼것이 있다. 花郎은 高麗朝에서 終焉을 告한 「잊혀진 價值觀」인가? 하는 点이다. 아니다. 花郎, 郎道, 仙家의 傳承은 비록 波濤치듯 一世를 風靡한때도 있었지만 오랜 潛伏期를 거쳐 衰殘한때도 있었다. 바로 지금이 그 衰殘期인 것이다. 그러나 그 衰殘期에도 休火山이 불을 뿜듯 民族의 正氣인 花郎열이 폭발하면서 그 命脈을 維持해 왔다. 그것은 壬辰倭亂때의 그 壯烈했던 僧軍의 모습들 그리고 三一運動 最近에는 4.19, 5.16의 義拳, 革命에 이르기까지 民族열(花郎)의 脈膊은 鼓動쳐 왔다.

다시 이時空속에 "어느 花郎"의 復活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心情을 吐露해 본다. 다시금 強調하거니와 이같은 겨레의 所望은 「愛國」의 生活化 「나라사랑」의 土着化, 「忠」의 現代的昇華로 비로소 成就된다. 또 이를 위해 우리는 民族史學-民族史觀의 定立을 외치는 것이다.

獨逸의 實証史家 Leopold Von Ranke는 말하기를 "歴史를 貫通하는 精神이나 思想은 없다. 있다면 그時代時代를 支配하는

思想的 傾向이 있을 뿐이다”(라틴과 게르만民族의 諸歷史」
 (geschichte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 von
 1494 ~ 1535)라고 했다. Ranke의 이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어
 서 이나라의 一部史家들은 말하기를 “韓國史를 貫通하는 精神은
 없다. 따라서 為堂 鄭寅普의 “五千年朝鮮의 史”이나 丹齊, 申采
 浩의 「獨立思想」이나 朴殷植의 「魂」 따위는 存在하지 않는다”
 (李基白 - 朝鮮日報七三年度 11월 13일字)라고 한다. 萬一 이따위
 主張이 事實이라면 우리는 구지 韓國精神文化의 特性이나 “花郎
 道” 따위를 研究할 必要性이 없다. 그러나 學說이나 理論에
 앞서 二千年間의 亡國流浪生活을 清算하고 새나라를 세운 「이스라
 엘」民族의 論理아닌 「現實」을 어찌 說明하겠는가?

「이스라엘」民族은 2,000年間 나라를 잃고 世界를 放浪했지만
 저들의 民族魂인 「選民思想」「시오니즘」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國家光復을 본 것이다. 反對로 大韓民國은 國家光復은
 했지만 民族魂의 光復 곧 國史의 光復은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Leopold Von Ranke나 그의 追從者들의 主張은 이처럼 歷史事象
 이나 現實을 外面한 Sophistication (詭辯學派의 얘기)에 不
 過하다.

民族史學이나 民族史觀에 담겨진 “史”이 없다면 民族史觀의
 確立을 渴求하는 오늘의 要請은 意味를 잃고 만다.

이런 似而非的 史學氣風이 하루 速히 이 땅위에서 払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北僞와 理念鬪爭을 통한

勝利」의 戰略이나 그 武裝으로서 民族史學-民族史觀의 定立을 學
論하는 참뜻이 있게 된다. 우리는 「나라사랑」의 哲學을 몸소
實踐한 저 「花郎」의 傳承을 여기 이 大韓民國의 時空속에 되
살려야만 하겠다.

(5) 結 言

지금까지 豫想되는 北傀史學의 挑戰과 이에 対応하는 우리의 基
本戰略과 姿勢를 檢証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多幸히도 지금까
지 南北關係에 있어 國內外的으로 有利한 高地를 지켜왔다.
다시 말하면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 등에서 우
리는 항상 「이니시아티브」를 가져왔고 北傀는 항상 受勢에 물리는
立場을 持續해 왔다. 지금도 저들은 「離散家族의 再結合」이나
「省墓團의 交流」等 우리 側의 提案을 默殺함으로서 國際輿論面에서
孤立相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이와같은 受勢는 항상
豹變할 수 있는 것이다. 萬一 지금 당장이라도 北傀가 먼저
「南北史學者會談」 같은것을 提議해 온다면 우리는 이에 어찌 對
應할 것인가? 비록 確率は 높지 않으나 이와같은 可能性은 充分
이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朝鮮史(植民史學)의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한 이나라의 主流史學이 北傀의 偽裝史學을 相對할 수
있겠는가? 그야 勿論 勝敗나 榮辱의 限界조차 分間 못하는, 破
廉恥漢이라면 불라도 敢히 이러한 挑戰狀에 承服할 勇氣는 없을
것이다. 비록 偽裝術이지만 北傀는 「樂浪郡 平壤說」을 否定하고
遼河를 灤河(北京近方~山海關)라고 主張(「리지린」)의 俱水考)

하는데 우리側은 아직도 「樂浪 - 平壤說」을 論하고 「大同江 ~ 溟水說」을 主張하고 있으니 豫想되는 이 「南北史學者會談」의 帰難는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할수록 아찔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조바심 때문에 韓國主流史學의 覺醒과 그 整備가 焦眉之急을 告하는 “緊急事項”임을 論했다. 그렇다면 韓國의 史學이 「平和的인 國土統一」이라는 民族的 宿願을 成就시키는데 있어 어찌 対処해야하며 어떤 戰略을 構想해야 할 것인가? 를 考察해 본다. 國土統一政策과 民族史學의 役割에 對해서는 일찌기 碩學이나 政客의 卓論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史學을 통한 「統韓戰略」은 本試圖가 嚆矢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史學的인 側面에서 想定할 수 있는 「統韓戰略」을 列挙해 본다.

(1) 「文化圈의 形成」과 그 「宣布」다.

東洋史는 「오늘날의 中原大陸에 사는 漢族」과 周辺을 에워 싸고 있는 알타이種族間의 「角逐史」라는 側面을 지닌 歷史다. 그러므로 알타이文化圈의 再認識과 形成을 통해 文化的, 種族的, 同質感을 極大化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알타이語族 가운데 오늘날의 韓半島에 살고 있는 韓國人이 文化的으로 가장 純料性을 지녔고 歷史的으로 가장 오래된 宗主族이라는 事實을 文學的考證, 人類學的實證, 文化史的 考古學的 確證을 통해 立論해야 할 것이다. 韓國史學의 學問的 使命은 바로 여기에 集約되어야 한다. 豫定대로 알타이文化圈이 東夷文化圈 (東夷族이 宗主族이므로 이렇게 부를수도 있다)

이다하는 認識의 到達이 이루어지면 祖國의 國土統一은 指呼之間의 近接距離로 닥아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認識到達이 유라시아 大陸全般에 흐터져 살고 있는 알타이語族全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바다 건너 日本民族에게만 이라도 徹底하게 周知될 때 北傀는 文化圈에서의 乖離(괴리)를 不免하게 될 것이고 이乖離의 挽回를 위해 北傀는 統一祖國의 大義에 한발이라도 닥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東夷文化圈의 宣布」를 斷行할 수 있는 段階까지 民族史學의 研究와 開發을 昇華시켜야 겠다.

(2) 韓, 日, 中을 主軸으로 하는 「東洋史學者大會」를 提議한다.

東洋史는 源泉的으로 中華史筆에 依해 歪曲, 脚色된 歷史요 最近에는 日本植民史筆에 依해 政略的으로 誤導, 汚染된 歷史다. 오늘날 韓, 日, 中의 良心的인 學者들은 이 史實을 實証的으로 認定告白하고 있다. 그렇다면 大東亞史의 改編, 是旧匡正을 爲해서 大東亞의 良心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는일은 實로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勿論 이러한 提案은 當장 具顯될 수 없는 「猫首懸鈴」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北傀의 偽裝民族史學이 挑戰할 수 있는 通路를 封鎖하고 저들의 偽裝的 假面을 벗기는 길은 이같은 韓國史學의 積極性, 進取性에 있다고 생각한다.

(3) 南北史學者會談의 提議 - 民族的 同質感에 呼訴하는 길 - 北傀의 史學挑戰에 正面으로 對決하여 勝利할 수 있는 史學界의 體制整備가 끝나지 않는 限 이提議는 危險性을 內包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民族史의 正統性 競争을 하려 드는 北傀史學의 偽裝性을 暴露하기 위해서도 우리側은 하로라도 빨리 이 提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朝野의 깊은 關心을 促求한다.

(4) 對日本文化政策과 在日僑胞善導는 現實적으로 國土(平和) 統一의 關鍵이다.

韓日 兩國間에 얽히고 얽힌 恩讎關係에 執着하기 보다는 現實적인 國利民福을 基本으로 하여 對日本文化政策과 在日僑胞 政策은 이時点에서 全面 再檢証, 再樹立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韓國은 지난날의 恩讎關係에 얽힌 對日感情을 清算하고 韓日關係는 바야흐로 善隣的인 「무-드」에 젖어 있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善隣 무드는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과 交隣하는 韓國으로서는 不可避하게 造成되기 마련인 어떤 受惠意識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이런 經濟的인 受惠意識은 자칫하면 새로운 敗北主義와 日本國力에 對한 壓倒感으로 發展될 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어느모로 보나 害國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韓日間의 史學交流나 史學的인 次元에서 韓日關係史를 眞摯하게 더듬어 볼 수 있는 機會를 갖지 못했다. 이미 經濟強國으로 成長한 先進國日本에게 壓倒적으로 君臨할수 있는 韓國側의 有利한 高地는 오직 民族史學이. 있을뿐이다. 周知하는대로 韓日間에 있어서의 「文化史的 同質感」은 곧 「民族史的 同質感」으로 歸納된다. 그만큼 지난날의 韓日關係史는 密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韓日間의 位階秩序는 距今百餘年前의 近代史에서 顛覆된 秩序이다.

日本史는 그初創期에서 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韓國史의 羈絆에서 벗어나지 못한 分國~植民地의 歷史였다. 마치 美國이 지난 날에는 大英帝國의 植民地로 있었으나 距今 二百年前에 主從의 序列을 뒤바꿔 오늘은 美國이 世界最大의 強國으로 君臨하는 경우와도 같다. 그러나 現代 日本을 보는 우리의 眼目이 올바른 視力을 恢復한다면 적어도 오늘날의 英國과 美國이 相對國을 보는 眼目이나 그 視力만큼 이라도 恢復되어야 한다. 이것은 重大한 指摘이다.

韓國의 對日本文化政策은 그基本哲學을 韓日古代關係史에 두고 上述한 英美兩國의 交隣關係程度까지라도 改善될 수 있도록 指針設定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美英兩國人들이 그러하듯 韓日兩國人은 文化的 同質性과 民族的 同質感을 極大化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要望되는 事態의 進展이다.

日本史學의 偏見을 攻略하여 이를 矯正하고 韓日兩國은 東夷文化圈의 宗主族으로서 東洋史改編의 主役을 맡아야 할 使命을 가졌다는 共同認識이 定向될때 祖國統一의 大路는 열린다. 笑로 韓國의 平和的 國土統一政策은 엉뚱하게도 對日本文化政策의 成敗에서 그 運命이 決定된다. 이는 現實的이고 具體的인 統韓方案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六十萬在日僑胞의 實在와 저들의 役割을 念頭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저들에게 民族史의 真相과 그榮光을 안겨주자! 그렇게 될때 우리는 日本과의 文化史的 戰爭에서 저들의 背後에 六〇萬의 게리라部隊를 심어주는 戰果를 期待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도 敗北主義와 劣等感만을 強要 當

하던 植民地時代에 敵地로 끌려갔던 저들에게 光復祖國이 안겨주어야 할 오늘의 선물은 果然 무엇이겠는가? 저 敗北主義와 劣等感을 払拭할만한 韓國史의 榮光以外에 아무것도 없다.

항차저들이 日本史學의 偏見과 誤謬를 最前線에서 攻略할 前哨兵임에 있어서라? 이나라의 國土統一政策當局은 마땅히 在日 六十万 僑胞의 實態를 把握하고 이들이 國土統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들 特有의 使命과 役割을 銳意檢討하여 이들에 對한 特別對策을 時急히 樹立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祖國의 平和的 國土統一은 國內外의 韓國民族들이 合心하여 이룩한 民族史에 길이 빛나는 「金字塔」이 되게 해야겠고 우리 모두가 二十世紀를 살고 간 韓國史의 偉大한 祖上이 되고 統一新羅에 이은 두번째의 民族的 大一統을 이룩한 거룩한 先人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全智 全能을 쏟아!